

雪門

불기 2559년
가을호
통권 제134호
雪門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부처님 나라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대중스님 덕분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 감사합니다. / 대교과 해운
- ▣ 오백전 부전스님의 오백나한 100일기도 염불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지는 가을입니다. / 사교과 종수
- ▣ 국화향이 가득한 가을입니다. 은은한 국화향기처럼 묵연히 자신을 바라보는 한철이 되었으면 합니다. / 사교과 우보
- ▣ 어떤 변화에도 늘 한 걸 같이 찾아오는 사계절처럼, 흔들리는 마음 부처님 생각함은 늘 한결같기를… / 사집과 영담
- ▣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읊긋불긋 산과들이 물들어 가는 수확의 계절 가을에 밭에 나가 땅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 사집과 청원
- ▣ 읊긋불긋 물드는 오색단풍처럼 우리 치문반 스님들 마음도 신심과 향심으로 곱게곱게 물드기를 두 손 모아 봅니다. / 사미니과 능가
- ▣ 친란하고 분주했던 여름철이 지나고 부처님 미소처럼 푸근하고 마음마저 따뜻한 가을철을 맞이 했습니다. / 사미니과 덕원
- ▣ 어김없이 찾아온 개학과 치문병… 대중과 도반들이 있는 운문사에 돌아오니 오히려 치문병이 치료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운문사, 운문사가 있어 행복합니다. / 사미니과 불수

雲門

목차

- | | | |
|----|----------------|--|
| 02 | 호가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 죽림현 | 禮拜 평성 |
| 06 |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일진 운문사승가대학장 |
| 08 | 교수논단 | 일연 선사와 운문사 ② 평성 |
| 12 | 특별기고 | 네필 지진 피해지역을 다녀와서 조병언 |
| 26 | 깨달음으로 가는 길 | 보현보살 심대원 편집부 |
| 16 | 졸업여행 특집 | 나마스떼! 인도 혜명 |
| 20 | 학인논문 | 불교문화콘텐츠파크 '인드라월드(IndraWorld)'를 제안하며 ① 혜도, 선우, 무이 |
| 25 | 想 | 꽃 한 송이 들어 올리신 뜻 해운 |
| 26 | 선배탐방 | 맑은 삶으로 가는 길 현광 |
| 30 | 차례법문 | 和請, 真理의 노래 무진 |
| 32 | 운문, 운문인 | 운문사 등산코스 편집부 |
| 36 | 기획탐방 | 대만, 수행자가 사는 세상 편집부 |
| 40 | 자유기고 | 대장부의 길 호주 |
| 42 | 편지글 |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아도 바로 그 자리 협요 |
| 44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바라보는 시작" 보경 |
| 46 | 수행의 두레박 둘 | 자비승과 함께한 여름방학 도우 |
| 48 | 수행의 두레박 셋 | 부처님을 닮아가기를 발원하며… 자평 |
| 50 | 이 한 권의 책 | 헬렌 켈러 자서전 범수 |
| 52 | 운문논평 | 관계關係를 관계觀界하다 편집부 |
| 54 | 운문소식 | |
| 55 | 등불 | 발원 편집부 |



禮拜

명성 / 윤문사승가대학원 원장



선가귀감에

禮拜者는 敬也요 伏也니 恭敬眞性하고 屈伏無明이니라.

(예배자는 경야요 복아니 공경진성하고 굴복무명이니라.)

부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뜻과 굴복시킨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우리의 불성자리 진실한 성품을 공경한다는 의미와 어리석은 무명을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있느니라.

대중스님 은행나무가 횡금색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니 화엄반 스님들은 인도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옛날에는 졸업여행을 우리나라 적멸보궁을 중심으로 참배하며 성지순례를 했었는데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가는 시절이 되었으니까요.

졸업을 앞두고 강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부처님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은 인도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며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나의 신심과 원력을 점검하고 다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그네가 되어 보는 것, 순례자가 되어 부처님의 탑 앞에서 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예배를 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그분의 복덕과 지혜에 머리 숙여 예경을 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자기 자신의 불성을 공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나의 신체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정수리를 가장 낮은 땅에 대고 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상과 아만 어리석은 무명을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지요.

아상이 무너진 곳에는 無爲道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人我山崩處에 無爲道가 自成하리라.) 사실 수행이란 아상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지요. 내가 옮다는 생각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생각은 수행을 망치는 자름길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아상을 무너뜨리는 수행으로 학인스님들에게 최고의 수행은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 절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운문사는 새벽예불과 함께 108배 절을 하고 있지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매일 108배를 하면 10일이면 1080배가 됩니다. 100일이면 만 팔백배가 되고, 1000일이면 십만 8000배가 되지요. 학인스님들은 매일하는 108배로 운문사를 졸업할 때면 십만 팔천배 이상의 절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8배의 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십만 8000배의 절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장하고 수승한 일입니까.

나이가 들고 무릎이 아파지면 절 수행은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학인시절에 절도 많이 하고 경전도 큰 소리로 독송하여 신심이 충만한 강원생활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善行과 작아 보이는 수행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힘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조그마한 하루하루의 수행이 모여 나의 일생이 되는 것인니까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自重自愛하는 뜻 깊은 가을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

나무아래서

일진 / 운문사승가대학장

을해도 어김없이 은행나무 개방 불사가 봉행 되었습니다.

특별한 의식순서도 없이, 운문사 홈페이지에 발표된 날짜와 시간에 이 거룩한 나무와 아주 가까이 마주하는 시간을 저는 ‘개방불사’라고 말합니다.

올 가을에는 가장 찬란했던 10월의 마지막 날과 11월의 첫날에 개방을 하게 되었는데, 벌써 이 불사가 시작 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은행나무가 학인스님들의 생활공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이문不二門을 열어 개방하지 않으면 일반 관광객들은 가까이 할 수 없기에 1년에 한번 안으로 들어오도록 배려한 날이지요.

문안의 학인스님들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날을 기다려온 분들의 발걸음과 표정에서 저는 ‘은행나무의 힘’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우 큰 둑치의 나무에 비해서 유난히 작고 노란빛의 잎이 마치 귀한 보석을 매달고 있는 듯한 나무를 대하여 언젠가 읽은 책의 나무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무는 그 자체로 길이다, 수십 수백 년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도 길은 만드는 것이 나무다. 나무는 억지로 길을 만들지 않는다. 미련스럽게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내공이 곧 길이 된다, 이곳저곳에서 길을 찾는다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아니다. 나무처럼 자신의 자리가 곧 길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길이 보인다.'

자신이 머무는 곳이 곧 길이라는 나무에 대한 교훈을 새기며 하염없이 나무를 봅니다, 우리 도량의 나무들로부터 호거산의 나무들, 엊그제 졸업 반스님들과 다녀온 인도 땅의 거목들, 부처님 깨달음의 도량 봇다가야의 보리수나무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많은 인류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무에서 느끼는 세월의 무게와 신성한 기운에서 나의 흐트러진 몸가짐을 바로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린 학인시절, 은행나무는 우리들의 놀이터였습니다. 단오 날에는 그 나무에 그네를 매고 신나게 그네뛰기 하던 추억까지 떠올리며 나무의 세월과 함께 지나온 저 자신의 세월도 돌아보게 됩니다. 한 철이, 한 해가, 다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그 시간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철 소임도 끝나는 날 우리는 소임 잘 살았다고 덕담을 하곤 합니다. 그 세월의 뒷모습 까지 보지 않고서는 그 세월을 올바르게 평가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개인의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런 사람의 생각이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엇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살고 간 후에야 비로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사회적 현상이나 역사도 당연히 같을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행공동체의

대중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는 우리 시대 삶의 자취로 고스란히 남을 것입니다.

한 시대가 또 다른 시대 속에서 주목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을 역사 또는 사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모습은 바로 이 시대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후대에게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어떤 평가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윤문도량에서 개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갖가지 경·중(輕·重)소임수행은 곧 개인의 역사이고 나아가서는 이 도량의 지난 천년의, 앞으로 또 천년의 세월에도 다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합니다.

은행나무가 늘 그 자리에서 몇 백 년을 머물면서 후래에게 길을 만들어 주듯이 우리는 어떤 길을 만들며 가고 있는 것일까요?

南無 나무보살. 南無 나무보살. 南無 나무보살
마하살. ●

일연 선사와 운문사 ②

명성 / 운문송가대학원 원장

목 차

1. 서언
2. 운문사의 창건과 내역
3. 일연 스님의 생애와 성품
4. 일연 스님의 저작과 삼국유사
5. 일연 스님과 운문사
6. 결어

3. 일연스님의 생애와 성품

일연스님은 고려 21대 희종2년 (A.D.1206)에 태어나서 25대 충렬왕 15년(A.D.1289)에 입적하였으니 세수가 84세요, 법랍이 71세였다. 일연스님이 생존했던 고려사회는 쇠씨집정기에서 대동항쟁기를 거쳐 몽고지배초기의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시기로서 온 국민과 함께 시련을 겪어야 했었다.

일연스님의 생애는 현재 경북 군위군 인각사에 전하고 있는 「고려국화산 조계종 인각사 가 지신하 보각국사비명병서 高麗國華山 曹溪宗 麟角寺 迦智山下 普覺國師碑銘并序」와 이 비의 음기陰記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¹⁴⁾

이 碑는 스님께서 시적示寂하니 충렬왕의 명으로 묵허공默軒公 민지閔漬가 짓고 글씨는 문인 죽허竹虛가 왕의지의 유묵에서 集字케 하여 원정 원년(A.D.1295)8월에 門人이며 운문사 주지였던 대선사 법진이 세웠다. 현전하는 비는 글자가 거의 마멸되어 알아볼 수 없으나 몇 개의 고탕본과 사본이 있어 그 전모를 알 수 있다.¹⁵⁾ 본고에서는 한국문화연구원 소장 고탕본과 규장각에 소장된 「인각사비」서첩에 있는 비음기를 통하여¹⁶⁾ 스님의 생애와 성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스님은 경주 장산군(現 경산) 사람으로 속성은 김씨요 휘는 견명, 자는 회연, 호는 목암이다. 일연은 후에 바꾼 이름이다. 스님은 나면서부터 충명, 영리하고 모양이 단정. 엄숙하여 소의 걸음에 범의 눈초리였다(牛行虎視). 고종 원년(A.D.1214) 9세에 해양(現 평주) 무량사에서 출가하여 14세에 설악산 진전사 장노 대옹에게 나아가 삭발하고 구족계를 받았다. 고종 14년 (A.D.1227) 22세에 승파에 응시하여 장원급제를 하여 九山四選¹⁷⁾의 으뜸이 되었다. 그 후 포산(現 협풍 비슬산)의 보당암, 묘문암, 무주암 등에서 수도에 정진한 결과 고종 24년 (A.D.1237)32세에 이르러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 삼중대사三重大師¹⁸⁾라는 法位가 수여되었으며 고종 33년 (A.D.1246)41세에 선사가 되었다. 고종 36년 (A.D.1249)44세에 정안의 초청에 의하여 남해 정림사에 주석하였고, 고종 46년 (A.D.1259)54세에 대선사가 되었다. 원종 2년 (A.D.1261)56세에 왕명으로 상경하여 선월사에 주석하며 멀리 牧牛和尚(普照國師)의 법맥을 이었다.¹⁹⁾ 원종 5년(A.D.1264)59세에 오어사에 안거하였고, 원종 9년(A.D.1268)63세에 왕명을 받아들여 운해사에서 선교에 이름이 높은 고승 백명을 모아 대장락성회大藏落成會를 베풀 때 스님을 회수會首로

삼았다. 특히 고종 19년 (A.D.1232) 봉고의 침입으로 인하여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고종 23년 (A.D.1236)부터 16년간에 걸쳐 대장경을 재조판할 때에 스님은 그 지도자 역할을 하였다. 또 인홍사仁弘寺의 주지를 맡아 11년간 퇴락한 절을 중창하여 인홍사人興寺로 개칭하였고 또 포산동쪽에 용천사 를 삼수하여 불일사를 이룩하였다.

스님은 충렬왕 3년 (A.D.1277) 73세에 왕명으로 운문사에 주석하면서 교의를 크게 선양하였고, 충렬왕 8년 (A.D.1282) 77세에 왕의 초청을 받아 황명사에 주석하였다. 충렬왕 (A.D.1283) 78세에 왕이 스님을 국존에 책봉하고 원경충조圓經沖照라는 호를 내리고 궁내에 맞아들여 몸소 백료를 거느리고 구의 예撫衣禮²⁰⁾를 행하였다. 스님이 노모의 봉양을 위하여 옛 절에 돌아가기를 간청하자 왕이 그 뜻을 허락하고 근시좌랑 황수령에게 명하여 스님을 호위하여 어버이를 모시게 하였다. 충렬왕 10년 (A.D.1284)에 노모가 96세로 돌아가시니 이때에 국사는 79세였다. 이 해에 나라에서 인각사를 스님의 하안의 절로 삼아 근시 금용겸에게 명하여 인각사를 중수케

하고 전답 100여 頌을 하사하였다. 스님은 여생을 인각사에서 한가롭게 보내면서 九山禪門²¹⁾ 곧 달마의 선법을 전하여 禪風을 일으켜 두 번이나 구산 선문의 도회를 열었다. 또 삼국유사를 지어 삼국사 기와 함께 우리나라 현존 최고 사서중의 쌍벽이 되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찬술한 곳을 흔히 인각사라고 말하고 있으나 「증보삼국유사」(최남선編)에 의거하건대 「삼국유사는 일연의 70세 이후로 경사에 피소하여 국존에 책봉되기까지 운문사에서 유한 업적이요 그 중에서도 俗事의 部인 왕력과 기이양편은 아직 왕명이 있을 그 전기의 찬성일까 하노라. 邇遯遯 이것이 삼국유사의 필이 인각사에 오기 전 따라서 국존이 되기 전에 끊었음을 말하는 명중일 것이며 卷五에 인각사 云云의 서함은 무릇 간판하는 후일의 事일 것이며 또한 고려될 것 아닐까 하노라」 한 것으로 보아 삼국유사를 찬술한 곳이 운문사인 듯하다.

스님께서 충렬왕 15년 (A.D.1289) 7월 8일에 示寂하니 향년이 84세요 법립이 71세였다. 왕이 매우

14) 이 碑는 1965년 9월 보물 428호로 지정되었지만 두 동강이 난 채 四尺 정도의 잔비로 인각사 경내에 남아있다.

15) 「元貞元年乙未八月日 門人 沙門竹虛泰勑集普右軍王義之書 門人內願堂兼住持通奧眞靜大禪師法珍 立石」 麵角寺誌 十張上 蔣濟明

16) 비음기에 「寶鏡寺住持通奧眞靜大禪師立述」이라 明記된 것을 볼 때 통오 진정대선사는 일연스님이 입적한 1289년경에는 운문사 주지를 하였고, 또 일연비를 건립한 1295년경에는 내원당과 보경사 주지 및 인각사 주지를 겸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진정대선사는 일연의 법맥을 계승한 보감국사 훈구(1251~1322)로 이름을 청분(법진)이라고 했다가 山立이라고 바꾸었다. 曾覺國尊 一然에 대한 研究 韓國史研究 26, 蔡尚植, pp.38~40

17) 九山四選은 「一然碑縉에 나오는 술어로 九山文選의 일종인 듯하다. 교종에서는 宗禪이라 하고 구산에서는 門選이라 한다. 九山이므로 九山九選이라 해야 하거늘 九山四選이라 한 것은 九山文選의 대포인 듯 하다.

18) 삼중대사는 고려시대 승과를 거친 스님들의 법계중의 하나로 大師, 重大師, 三重大師의 順이다. 삼중대사의 특징은 선종법계나 교종법계가 공통이며 이 법계를 거쳐야만 교종의 수화가 되고 선종은 선사가 된다.

19) 知詳門下의 정맥을 이은 혜심과 일연은 동시인들이다. 〈三國遺事와 僧一然과의 關係考索, 이남영〉 어떤 연유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정안의 사제인 정림사에 초청을 받은 이후로는 수선사 頤隱寺계통의 혜심(조계종의 第二祖)의 저술인 「禪門拈頌」에 깊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수선사 삼세인 몽여와도 교분을 맺게 되어 명실상부한 수선사 계통의 계승자로 자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閔濟의 표현대로 「요사목우화상」이라 했으며, 수선사와 연결된 선월사(선원사로 추정됨)에 주석하면서 이를 계기로 수선사의 계승자로 자처한 것 같다. 〈曾覺國尊一然에 대한 研究, 蔡尚植〉참조.

20) 衣禮~옷의 뒷자락을 걷어 올림. 옛날의 敬禮

21) 九山禪門~가지산문 장총 보림사, 실상산문 남원 실상사, 동리산문 곡성 태안사, 봉림산문 창원 봉림사, 성주산문 보령 성주사, 사자산문 능주 쌍봉사, 회양산문 문경 봉암사, 수미산문 해주 수조사, 도굴산문 강릉 굽산사



옛 운문사 적암전



현재 운문사 적암전 모습

슬퍼하며 사신을 보내어弔喪하고 시호를 보자이라
하고 탑호를 정조라 하여 인각사 동쪽 5리쯤 떨어
진 부부춘共同发展에 탑을 세웠다.²²⁾

일연스님은 9세에 해양 무량사에서 취학했으
나 승려로서 정식으로 체도하고 구족계를 받은 것
은 14세에 설악산 진전사의 대웅 장로에게서였다.
그런데 진전사는 가지산문의 개산조인 도의가 온거
한 곳이며 염거(844) 체징(804-880)등이 사자 상승
하였던 가지산문의 주요 사찰이었다.²³⁾ 가지산문
은 신라 말기의 이른바 九山門中の 하나로 도의가
당에 유학하여 마조도일의 제자인 서당지장에게서
심인을 받고 신라 현덕왕 13년(A.D.821)에 귀국함으
로써 받아들여진 선법에 기초한 종파이다. 다시 말
하면 가지산문은 도의, 염거를 거쳐 보조선사 체징
에 이르러 체징이 신라 현안왕 3년(A.D.859)에 왕
의 청으로 진전사를 떠나 전남 장흥 가지산에 있는
보림사에 주석하면서 형성한 선종의 종파이다.²⁴⁾

일연스님이 진전사를 통해서 가지산문에 입산

한 이후의 생애는 크게 네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
다.²⁵⁾ 첫째, 포산의 여러 사찰에서 주석하던 시기
(1227-1248) 둘째, 정안의 초청에 의해 남해 정림사
와 지리산 길상암에 거주하던 시기(1249-1260) 셋째,
원종의 명에 의해 선월사에 주석한 이후 경상도
지역의 오어사, 인홍사, 운해사, 용천사에 주석하던
시기 (1261-1276) 넷째, 충렬왕의 명에 의해 운문사
에 주석하다가 국존에 책봉되고 임직한 말년까지의
시기 (1277-1289)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기는 스님
이 주로 영남 세력의 중심지인 경주와 인접한 지역
즉, 현풍 비술산에서 약 22년간을 지내면서 뚜렷한
행적을 남기지 않은 것은 이 시기가 최씨정권의 2
세인 최우가 정권을 담당하였던 대동항쟁기 이였으
므로 소극적으로 잠적하여 지낸 까닭이라 생각된다.
고종 23년 (A.D.1236)에 몽고병이 침입했을 때
스님께서 피지하고자 문수오자주文殊五字呪를 외
워 영험을 본 기록은 이를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22) 정조탑은 삼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층은 불상, 중층은 연화, 하층은 팔각으로 각면에 동물의 상을 새겨 놓았다. 처음 이 탑을 대안에 있는 스님의 모릉과 마주보이는 곳에 세웠는데, 몇몇 물지각한 이들이 자기의 조상묘를 쓰고자 탑을 하물어 방치하였던 것을 1978년 인각사 경내에 옮겨 놓았다. 麟角寺誌 十六張, 蔣齊明 撰

23) 〈襄陽 陳田寺址 遺蹟調査〉 歷史教育 11~12 1969 鄭永鑄

24) 〈新羅下代禪宗九山派의 成立〉 한국사연구 7호 1972, pp.93~95 崔 奎

26) 「丙申秋有兵亂 師欲避地 因念文殊五字呪 以期感應忽於壁間文殊現身曰無主居」 一然碑銘 p.4

둘째 시기는 정안의 초청으로 남해 경림사에서 주석하던 시기인데 스님이 수선사와 교류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최씨 정권과 가지산문이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스님을 초청한 정안은 최이의 장인인 정숙담의 아들이었으며, 정안은 수선사 2세인 혜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다.²⁷⁾

셋째 시기는 스님이 대선사가 되고, 원종 임금에 의해 강화도 선월사에 주석하면서 「멀리 목우화 상 지눌의 법을 계승했다」고 하며 수선사의 계승자임을 자처한 시기이다. 이처럼 왕실과 깊은 관계를 맺은 이후 스님은 가지산문의 본래 근거지인 영남 지역의 여러 사찰에 주석하면서 가지산문의 재건에 힘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기는 스님이 운문사에 주석한 아래 국존이 되고 임직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대몽항쟁기를 거쳐 원지배시기로 스님이 소속된 가지산문이 무신란 이후 원지배시기 이전에 조류를 이루던 수선사, 백련사를 대신하여 고려 불교계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한 시기이며, 그 주도적 역할을 스님이 담당하였다. 스님이 주석한 운문사의 제3중창주로 일컫는 학일원용 국사가 가지산문의 중심인물이여 그로 인해 가지산문의 중심지가 영남으로 옮겨진 것을 볼 때 스님의 운문사와의 인연은 매우 각별한 것이라 생각된다.

스님의 성품은 고매하여 대중 속에 처하여도 홀로 있음과 같고 높은데 거하여도 낮음과 같이하여 배움에 있어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넘어서 일일이 스승에게 배워 깨닫기보다는 스스로 통효할 정도로 명석하였다.

스님은 84세로 임직하기까지 선도의 정진은 물

로 장경을 두루 열람하였으며, 제가의 장소를 궁구하며 밖으로는 유가경전 같은 외전도 넓게 섭렵하여 백가에 관통하여 무릇 50여년 동안 불문에서 지도적 능력을 보였다.

스님이 가는 곳마다 서로 다투어 경모하되 스님의 문하에서 삼학치 못함을 부끄러워할 정도이며, 스님의 한마디 말씀을 들으면 감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에게 수학한 인물 중 가장 두드러진 이로는 영원사 보감국사 혼구가 있다, 그는 원래 무위사의 천경 선사에게 득도하였지만 나중에 일연스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일찍이 원나라 몽산덕이 선사가 보내온 무극설의 명의를 터득하였으므로 자신의 호를 무극이라고 하였다. 현존한 「삼국유사」 가운데는 많은 부분이 혼구에 의해서 보충되고 있으며 또 찬의 여러 곳도 무극 자신에 의하여 기록되고 있다. 혼구의 뒤를 이어 가지산문을 계승한 이로는 태고보우와 라옹혜근 등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한 스님은 남달리 효성이 지극하여 목주 진준숙의 風을 사모하여 스스로 목암이라 號할 정도였다. 노령에 이르러서도 총명이 조금도 흐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데에 게으르지 않았으니 지덕과 진자로 추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평범한 기운의 태생으로 정력적인 노력형 인물이었으며 왕이 국사로 책봉하려 할 때 극구 사양한 사실로 미루어 겸허하고 초탈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

〈다음호에 계속〉

27) 「高麗史」卷100 列傳 鄭世裕傳附晏傳

28) 선문념송~혜심이 49세때에 선문념송 30권을 편술하였는데 이 책은 선림의 공안1125종과 제조사의 낌송 등 요어를 수록한 불서로서 송광사에서 이룩한 것이다.

29) 〈—然碑銘〉p.19

30) 조동오위는 동산량개(807~869)가 제창한 편정오위로서 즉 정중편, 편중정, 정중래, 편중지, 겸중도이다. 조동종의 핵심적 저술로 조동선맥을 이은 수미산파에 의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된 것이다. 高麗後期의 禪思想研究 p.152 權奇(宗著)



네팔 지진 피해지역을 다녀와서

조범연 /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

2015년 4월 25일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다. 보통 일본의 어느 지역, 태평양의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다. 그러나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5월 12일 한 번 더 여진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졌고, 살아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깨쳤고 일터가 사라졌다, 내 피부에 찔린 가시의 아픔은 그 곳이 어느 곳이든 나를 신경 쓰이게 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느껴서인지 수많은 매체와 인터넷 기사로 떠다닐 때는 잠시 아픔을 느끼는 듯 안타까웠지만 이내 그 마음이 수그러들었다.

지진피해가 발생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곳에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좋은 일이다. 돋자. 일단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보고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믿기지 않을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었다. 여러 분들이 마음을 내서 돈이 모이고 가져다 줄 옷가지가 모이고 방문할 사람들이 모여졌다. 팀 동료들이 네팔에 대해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현지에서 정착해서 생활하시는 분들, 네팔의 한인회 등에게서 정보를 얻어 분석하고 취합해서 드디어 9월 9일 네팔로 나서게 되었다.

네팔로 들어서는 공항은 외국인이라고는 우리 외에 4~5명, 현지인들이 대부분이다. 지진의 위험성 때문인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기에 네팔의 경우 관광업이 대부분의 수입원을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한편에서 걱정이 올라왔다.

네팔에 도착한 이튿 아침 네팔 주민들이 사원 주변을 크게 돌고 있다. 참 부지런도 하다. 가는 곳곳마다 절을 하고 촛불공양을 하고, 꽃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과일을 드리고 뭔가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행색이 좀 낫던 못하던 열심히 열심히 걸으면서 대상이 나타나면 기도를 드리고 뭔가를 놓고 기원을 드리고 다시 걷고 다시 뭔가를 드리고 걷기를 반복한다. 들떠 있는 마음을 가라 앉히고 나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 ‘가족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중에 문득 나의 머리 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온통 해달라는



것 뿐이다. 저들은 대상에게 뭔가를 드리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데… 나는 그냥 달라고만 하고 있다. 뭐해주세요. 해주세요.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3~4살 아이들처럼 해주세요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내가 제일 갖추지 못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것들을 탐욕스럽게 달라고 하고 있다. 순간 부끄러움이 올라왔다.

지진피해 마을에 가는 모습은 어려서 내가 살던 작은 동네의 모습과 흡사 비슷하다. 텃밭이 있고 논기슭에 벼나락이 올라오고 있고, 멀리 카트만두의 도시건물들이 보이고 반대의 이곳은 흙벽돌로 지어진 붉은집 들 옆으로 반짝반짝 양

철로 지어진 임시 숙소가 보인다. 한곳이 아니고 둘 성큼성큼 보인다. 한낮의 열기가 양철지붕을 고스란히 덤히고 있었고 날아 추워지는 네팔의 찬공기를 막아주기에는 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만하다. 벌써 지진이 난지 5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흙집이 무너져서 생긴 집터의 흙더미 위로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고 제법 커서 꽃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 하다. 한쪽에서는 많은 것이 부서졌지만 한쪽에서는 그것이 기회가 되어 짹을 틔우고 꽃을 피우려하고 있으니…

현지인의 안내로 임시거처와 부서진 집터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해졌다.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지진 피해자의 얼굴들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심각하지 저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토마토와 채소들을 키워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도 한꾸러미씩 쟁겨주면서 감사의 표시를 잊지 않는 모습에 내가 더 덧찍었다. 절망과 좌절로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은 네팔인들은 나의 머릿속 생각였다. 한동안 그들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열심히 하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의 눈빛과 얼굴이 가을 하늘처럼 맑게 그렇다고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카트만두에서 산악용 랜드크루저를 7시간 정도 타고 산에 올랐다. 우기에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패인 비포장도를 따라 해발 1500m 정도의 산을 올랐다. 오르는 길 내내 요철이 심하고 위험 스러워 전날 잠을 못자 피곤했지만 잘 상황이 아니다. 중간 중간 집들이 보이고 밭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희안하게도 산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집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학교는 산의 맨꼭대기에 있었다. 우리가 간다는 소식에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환대해 주었다. 아이들의 행색과 옷들이 꼬질꼬질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미소는 그 어디에서도 본적이 없는 환함과 맑음이 있었다. 지진피해를 본 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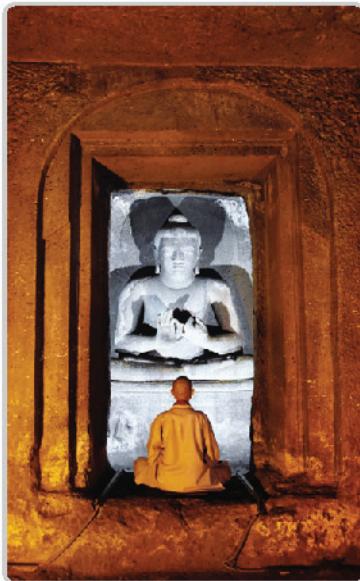


고도가 높아서 바람과 온도가 상당히 낮아질 텐데 걱정이다.



네팔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약속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무었을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그들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의외의 대답으로 벽돌을 사달라는 것이다. 벽돌과 시멘트 철근을 구해달란다. 구해주면 자기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참 양심적이고 착하다.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이 아파오고 저려왔다. ‘아, 당신과 내가 이 우주 생명체가 모두가 하나이구나 내가 가시에 찔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아파오고 저려올 수 있구나。同體大悲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보다. 더 도와야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는 ‘아 그렇지… 나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힘겨운 것들에 대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참 어리석게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 어리석게 머리로 뭔가를 염으려고 했다. 실천이 없었구나… 한번 실천을 하게 되니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세상의 좋은 가르침을 글로써 배워 많이 잘 안다고 한들 누군가를 위해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겠는가? 시골 마을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마실 물을 내 놓던 배우지 못한 시골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자애로운 마음을 갖은 불성이 아니겠는가?

온 원래 살던 흙 집안으로는 못들어가고 있고 그 옆에 양철로 만든 임시주택에서 기거하고 있다고 한다. 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수백의 변화로 원래 있던 우물에서 몇 키로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학교는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기둥도 무너져서 정부에서는 출입을 금지하고 양철과 비닐포장, 대나무로 지어진 임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곧 한 겨울이 올텐데 그곳은



보현보살 십대원

1. 예경제불원 雷敬諸佛願

사방의 모든 부처님께 예를 올려 공경하길 원합니다.

2. 칭찬여래원 稱讚如來願

사방의 여래를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3. 광수공양원 廣修供養願

사방의 부처님께 널리 공양하길 원합니다.

4. 침제업장원 慈除業障願

업장을 참회하고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5. 수희공덕원 隨喜功德願

남이 지은 공덕을 따라 함께 기뻐하길 원합니다.

6. 청진법륜원 聰轉法輪願

부처님의 법문을 청하길 원합니다.

7. 청불주세원 請佛住世願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것을 청하여 원합니다.

8. 상수불학원 常隨佛學願

부처님을 항상 따르고 배우길 원합니다.

9. 항순중생원 恒順衆生願

항상 중생을 따라 주시길 원합니다.

10. 보개회향원 普皆迴向願

모든 중생이 불도에 들기를 원하옵니다.



GANZISGANG 일출을 보며



법화경설법지 영축산

나마스떼! 인도

혜명 / 대교과



수자타스쿨 꼬맹이와 함께

무척 고생할 것이나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주변의 걱정과 우려, 그리고 격려를 받으며 인도 성지 순례를 위해 32명 화엄행자들은 홍콩을 경유하는 멜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멜리 국제공항은 신비로운 부처님의 나라, 인도를 찾은 이방인들로 가득했고 삭발염의 한 우리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수속을 마쳤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 되어 버렸다.

우리들의 순례는 인디아 게이트를 시작으로 첫 날을 맞이하였다.

인디아 게이트는 세계1차 대전 당시 인도의 자차를 위해 참전한 인도 젊은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탑으로 인도의 국민 관광지로 대통령 궁과 함께 멜리 행정사를 장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멜리 박물관을 들려 인류 문명 발생지의 유적과 인도 불교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오랑가바드로 출발했다.

오랑가바드 석굴은 관광객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고고학적으로 많은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있었고 엘로라 석굴은 BC.5~10에 승원, 승방 등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는데 그 중 카일라스 힌두 사원은 종교를 떠나 그 시대 석공의 위대함 마저 느끼게 하는 석조건축물이었다. 순례단의 첫 예불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석상이 모셔져 있는 10번 예배당에서 모셨다. 부처님의 자비하신 미소가



가득한 법당에서 장엄이 울려 퍼지는 지심귀명례와 반야심경 소리는 환희와 감동으로 눈물짓게 했다.

4일째 엘로리를 떠나 남성적인 웅장함을 지닌 아잔타석굴로 향했다. 아잔타 석굴은 1819년 영국장교 존 스미스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고 불교 미술, 조각의 보고로 부처님의 전생담과 생애와 인도의 풍속등을 다채롭게 묘사하고 있다.

5일째 순례는 인도르의 산치 대탑에서 시작했다. 산치 대탑은 아쇼카 왕에 의해 페칸 고원의 아름다운 전원에 둘러 쌓인 언덕 위에 세워졌으며 커다란 석조 난간에는 부처의 생애를 새긴 조각으로 장식된 4개의 문이 있었다. 그리고 인도 여행담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 거리를 제공한다는 야간기차가 제시간에 도착해 순례단을 가호해주 시는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가파에 감사하며 보팔을 떠나 샤자한 왕의 룸타즈 마할에 대한 사랑으로 널리 알려진 아그라로 향했다.

6일째, 22년에 걸쳐 지어진 흰 대리석의 영묘와 아무나 강 언덕에 적사암으로 지어진 아그라성과 함께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은 무굴인들의 화려했던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7일째, 기원정사 순례에서는 스리랑카, 티벳 불자들과 함께 단을 꽃으로 장엄하면서 언어, 인종, 국경도 허물며 불교로 하나 되었고 예불 후 읽었던 금강경은 마치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앉혀 놓으시고 설하고 계시는 듯 하였다.

숙소인 천축선원에서 여장을 풀고 스님께 여러 가지 포교 활동에 대해 들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 아이들의 교육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와 보건소 불사를 계속하시는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가 다시 인도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힘쓰고 계셨다.

8일째, 천축선원을 떠나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 쪽 카필라바스투인 피풀라와에 도착했다. 인도와 네팔에서 부처님 탄생지라고 고집하는 두 곳 중 하나로 왕국은 유적과 연못이 남아 있었고, 승원의 흔적이 있던 곳에서는 부처님의 머무시던 방의 돌침대방이 남아 있었다. 잠시 부처님처럼 승원을 포행하면서 무념무상이 되기를 염원했으나 시간에 쫓겨 네팔의 카필라바스투로 출발했다.

네팔의 안개에 가려져 있는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는 인도와는 다른 소박하고 단정한 풍경을 선사해주었다. 룸비니 동산은 부처님 탄생지로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이 친히 참배한 후 세워놓은 석주가 성지를 지키고 있었고 마야데비 사원에는 부처님의 탄생을 묘사한 조각상과 싯다르타 연못, 승방, 승원터 등의 유적지등이 남아 있었다.

우리 순례단은 보리수 아래에 자리를 잡고 부처님의 탄생에 감사하며 예불을 올리고 한국 사원인 대성석가사를 방문하였다.

9일째, 네팔국경을 넘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쿠시나가르로 이동하였다. 쿠시나가르는 부처님 열반 장소로 우리 순례단은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아 그분의 마지막을 지킨 제자들처럼 슬픔에 쌓여 마지막 유훈을 되새기며 예불을 모시었고 부처님 다비 장소인 라마브하르 대탑과 부처님께서 삭발 염의하신 케사리아 대탑으로 이동, 예를 갖추고 부처님께 연꽃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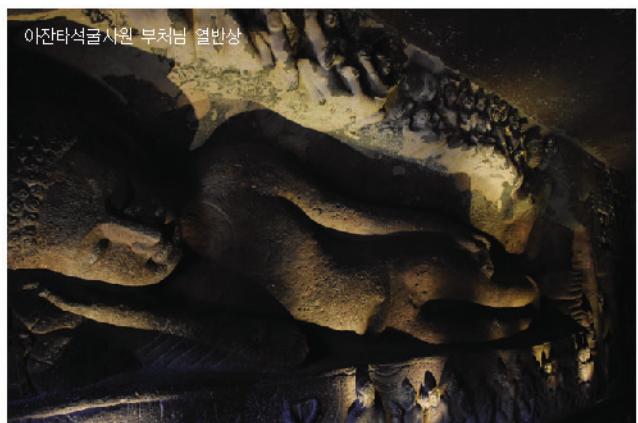
10일째, 부처님과 많은 인연이 있었고 가장 사랑하셨던 바이살리였다. 바이살리는 화엄경 입법제품을 설하신 곳이며 여성의 출가를 허락함으로써 최초의 비구니 승단을 이루게 하셨던 곳이고 열반 전 마지막으로 들르신 곳이다. 암라팔라로부터 보시 받은 대림정사와 원숭이들이 부처님께 꿀과 연못을 공양 받으

시고 사자상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아쇼카 석주, 부처님 진신사리 탑등이 남아있어 부처님 전법 당시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슬람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어 불에 타버린 나란다대학에 당시 수행자들이 지금과 많이 다르겠지만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여일 정진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영축산으로 향했다.

운문사 순례단이 올 것을 알았던 것일까 평소에 관광객이 많아 자리 잡기도 힘들다는 영축산 정상 법석은 조용했고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신심 충만하고 장엄하게 예불을 올린 우리들은 사진작가들을 위해 모델이 되어 주는 낙낙한 보시까지 해주고 보람차게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11일째.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른 새벽 칠엽굴 향하면 중 죽립정사와 온천지를 돌아보며 인도인들이 느끼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면서 목적지인 칠엽굴에 도착했다. 제1차 결집이 이루어졌던 칠엽굴은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굴이었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빌굴될 당시만 하더라도 비교적 넓었으나 어떠한 이유로 인도 경찰에 의해 폭파되었다고 한다. 불교의 유적들이 잘 보존되기를 다시 한 번 염원하면서 마하보디 사원으로 가는 도중 전정각산과 유영굴에 들러 참배하고 인도의 불가촉천민을 위한 교육과 그들의 삶의 방향을 새로이 이끌어 주고 있는 수자타 아카데미에 들러 지금까지의 사업과 진행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큰 감동으로 잠시 더 머물지 못하는 아쉬움은 마하보디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할 것을 다짐하며 비교적 잘 닦여진 도로를 달려 출발 1시간 여만에 보드가야에 도착했다.

간단하게 여장을 풀고 잠시 인도인의 일상을 들려 본 후 보드가야 대탑으로 향했다. 각국에서 온 많은 수행자들을 만나고 부처님께서 정좌을 이루신 장소에 웠다는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고 부처님을 친견하고 저녁 예불을 드릴 장소에 모였다. 예불이 시작되자 주변은 고요해졌고 감동으로 목이 메어왔다. 보드가야



에서의 이틀의 여유는 기도하고 관광도하면서 보냈고 두번째 대탑에서의 예불은 전날보다 더 많은 인파들 속에서도 신심을 고취하고 부처님께 금빛 가사도 올리면서 반드시 부처님과 한 회상에 태어나 또다시 당신의 제자 되기를 부처님께 발원하였다. 이렇게 충만한 신심을 느끼게 한 보드가야 대탑이 이슬람들의 파괴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대탑의 훼손을 막으려고 불자들이 흙으로 3/2가까이 덥고 힌두교 사원인 것처럼 신상들로 위장을 해 놓은 덕분에 지금의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고스란히 남겨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네란자라강과 우르벨라 가섭을 교화시킨 곳, 부처님께 유미죽 공양을 올린 수자타의 사원과 탑을 순례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을 돌려 보드가야를 떠나 바라나시로 향하였다.

마지막 순례는 캔지스강에서 매일 저녁 행한다는 힌두교 제사 의식인 아르띠뿌자와 화장터, 그리고 캔지스의 일출과 녹야원과 다메크 대탑, 다르마라지카 사리탑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부처님상이 있는 사르나트 박물관을 끝으로 우리의 길고도 짧았던 성지 순례를 모두 마쳤다.

15박 16일 간의 여정에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어 기뻐했고, 부처님께 예경하며 우리와 다르지만 같은 이들을 만날 수 있어 감동했으며, 지나치는 인도인의 고단해 보이는 삶과 가는 곳마다 1달러를 구걸하는 아이들 때문에 아파했고 부처님의 자취가 무참히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어 슬퍼했다. 그리고 인도에 불고 있는 불교 부흥의 기운에서 희망을 보았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어른스님과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와 다른 환경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순례를 즐겨준 화엄반스님 모두와 순례가 편하고 인도를 맴겼 누릴 수 있도록 화엄반의 또 한명의 도반이 되어주신 학장스님께 감사드립니다. ☺



불교문화콘텐츠파크 ‘인드라월드 (IndraWorld)’를 제안하며 ①

혜도, 선우, 무이 / 사집반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의 개념과 사례
 - 1.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의 개념
 - 2. 불교문화콘텐츠파크 조성에 참고 할 만한 사례
- III.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의 평면도와 상세 설명
 - 1. 불교문화콘텐츠파크 평면도
 - 2. 불교문화콘텐츠파크 상세 설명
- IV. 나가는 말
- V.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천년 법맥이 흐르는 전통사찰 운문사에서 수행 정진하는 학인인 필자들은 적어도 하루 세 번, 상대적 개념에 대한 모든 대상이 둘이 아니라는 의미의 ‘불이문不二門’을 나가 부처님의 설법이 만세를 누린다는 의미의 누각 ‘만세루萬歲樓’를 지나 극락세계가 펼쳐진 공간인 불전 ‘대웅보전’에서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절에 있는 모든 것엔 의미가 있기에 짧은 소개를 붙여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운문사 만세루엔 최근에 그런 벽화가 있다. 「운문사의 처진 소나무 아래 부처님께서 자리하고 그 주위로 사슴과 새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다. 정중히 합장하고 있는 아이, 서서 합장하는 아이, 형을 말 삼아 타고 귀를 잡아당기며 부처님을 향하고 있는 아이, 사슴에 올라탄 아이 등 다양한 모습을 한 아이들이 마치 할머니로부터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듣는 듯 부처님을 예워싸고 있다.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다섯 마리의 까치까지도 부처님을 향하고 있어 무엇인가를 들으려 하는 모습…… 어린이를 향한 대중포교의 노력이 엿보인다. 향후 불교의 대중화와 이에 따라 불교미술이 어떻게 대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듯 하여 눈길이 간다.」¹⁾고 표현하고 있는 이 벽화를 보라.

이 벽화는 비단 불교 대중화와 이에 따른 불교 미술의 대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부처님 도량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하지만 자유롭고 즐거운 모습으로 놀이공원이나 놀이터에 놀려온 듯 익숙하게 부처님과 함께 한다. 21세기의 절은, 현대 사회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누구든 자유롭고 즐겁게 와서 평온을 찾고 행복한 마음을 지닌 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불법이 만세를 누리기를 바리는 마음, 불교의 완전한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행복

한 사람들이 많기를 바리는 마음은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세상 모든 존재와 연생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마음이다. 불법과 승가에 대한 배움과 고민도 미숙한 학인으로, '부처님께 설법'한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지만 초심자이기에 낼 수 있는 용기를 내본다.

이 제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도正道로 전달하면서도 불교문화콘텐츠를 현대인의 필요와 포교 대상의 생활방식에 익숙하게 다른 시각으로 접근·재구성한 공간인 '불교문화콘텐츠파크'에 대한 것이다.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은 마음의 치유와 평안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 어린이와 젊은 세대도 찾아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상징에 기까운 이 공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적·물적 자원과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추후를 기약하고자 한다.

II.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의 개념과 사례

1.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의 개념

전통사찰처럼 천혜의 자연, 상상과 비유를 통한 '으뜸가는 가르침(宗教)'을 전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잘 어우러진 문화의 보고는 더 이상 없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이미 문화의 보고로서 전통 사찰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1,700년을 이어오며 민족의 정서, 사회와 역사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우리 문화재 중 불교문화유산의 비중이 국보

는 56.7%, 보물은 63% 정도 차지하고 있다.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정치, 사회 등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다수의 젊은이들에게 불교문화는 학교에서 성적을 위해 흘러가듯 배우는 과목 속에 포함된 내용으로 머물려 있다.

또한 '부처님은 시방삼세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아둔한 중생은 무엇인가 시각적으로 보여야 마음을 냅니다. 무엇이라 나타낼 수 없는 근본 자리를 찾아가라고 중생에게 그냥 말하기에는 너무도 어렵습니다.'²⁾라고 하듯 이 상징과 비유에 의해 표현된 탱화, 건축물, 의식에 대한 인식의 어려움은 불교문화콘텐츠가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분야로 활용, 재생산되는 것을 방해한다. 특히 정보화 시대 태어나 자라는 10대~20대에게 물리적인 위치는 물론 정서적 공감 부분에서도 거리감이 있으며,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불교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스스로 알 수 없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불교문화콘텐츠를 펼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공간 '불교문화콘텐츠파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에 대한 수많은 정의 중 가장 반복하게 인용되는 것은 영국의 문화 인류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타일러(Sir Edward Burnett Tylor, 1832~1917)는 자신의 저서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모든 사회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사회가 그릇이라면 문화는 그 그릇

1) 대한불교진흥원, 한국의 명찰시리즈 문문사, 117~118p.

2) 목경찬,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2008, p.17.

에 담겨있는 내용물'이라고 이야기한다.³⁾

또 「문화 이론 연구의 권위자인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문화를 ‘사회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표현한 모든 것, 특정한 삶의 방식이라 정의했다. 이렇게 비춰 본다면, 문화콘텐츠에서 문화란 역사, 전통문화, 유물, 예술은 물론 추상적인 개념, 사상, 현재 상황에서 혹은 일상에서 의미 있는 실천 작용에 대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결국 문화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의미하는 것」⁴⁾이라고 한다.

연결해서 보면 「불교문화콘텐츠란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것, 즉 유무형의 정보문화재와 불교교리, 수행법, 불교전통문화 등 불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⁵⁾를 말한다. 이재수는 「불교철학의 입장에서 불교문화콘텐츠를 불교의 문화유산, 불교적 생활양식, 이와 관련된 사회적 제반현상 등을 소재로 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문화콘텐츠」⁶⁾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제안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을 정의하면 「불교문화콘텐츠를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테마파크라는 모양의 그릇에 담아 다양한 세대별로 오감으로 경험하게 하며, 진정한 삶에 대해 배우고 일상으로 돌아가 실천할 할 수 있도록 정보·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공간형 콘텐츠」라고 하겠다.

모양으로 선택한 테마파크는 다양한 세대의 현대인에게 익숙한 공간이다. 테마파크는 한마디로 독특한 주제와 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소재를 이용하여 방문객들에게 일탈의 경험을 제공하는 공원

이다. 일상과 다르게 창출된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세대가 편리하게 즐기는 공원으로서 그 속에서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복원된 마을, 유서 깊은 철길, 다양한 주제의 전문 박물관, 관련 쇼핑센터, 텁승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테마파크의 개념과 특성을 보면 첫째, 차별화되고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며 대표하는 테마성이 있으며, 둘째, 하나의 독립된 완전한 공상체계로 비일상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비 일상성이 제시된다. 셋째, 테마파크 안에 있는 모든 환경과 시설, 프로그램은 산만하지 않고 테마에 맞게 구성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통일성이 요구되며, 넷째, 단일한 요소만이 아닌 건축물, 조경, 음악, 디자인, 공연, 음식, 상품, 휴게 공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가 모여서 종합된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오락, 여가, 문화 및 정보, 교육 등의 ‘창조적 유희공간’이 여러 기능들과 복합적으로 구성됨으로써 다양화된 소비자의 요구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복합성이 내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테마파크는 다양한 학문과 분야의 결정체라 하는데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유희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산업이다. 일반적인 테마파크는 교육적, 정보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중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므로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흡인력인 오락성과 매력을 제공해야 한다. 사람이 테마파크를 찾고 다시 방문하게 되는 바탕에는 현실을 벗어나 비일상적 공간을 즐기려는 ‘오락성’이 자리 잡고 있다.⁷⁾ 이러한 테마파크의 특

3)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설립지식총서 217*, 2006.2.28., 북살림출판사

4) 태지호, 「공간형 콘텐츠」,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5) 신지용, 「불교문화와 콘텐츠」, 전자불전 문화재콘텐츠연구소 제6회 학술세미나, 2004.12.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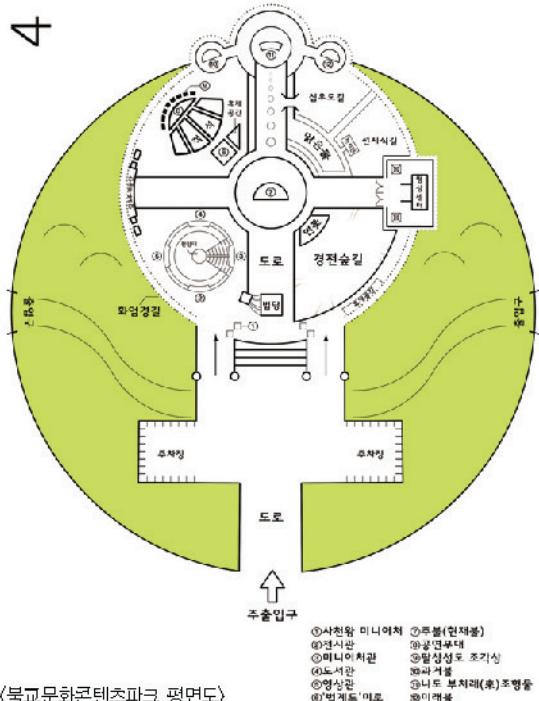
6) 이재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불교문화콘텐츠 기획」, 전자불전 문화재콘텐츠연구소 논문집 제3집, 2006, p47~48.

7) 김희진, 「일본 테마파크의 사례와 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성은 많은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이유이지만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긴 어렵다.

이에 다음의 몇 가지를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인드라월드’의 특성으로 제시하겠다.

첫째, 기존 전통 사찰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유지 보존하며 그 주변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현대인의 필요와 포교 대상의 생활방식에 익숙하게 불교문화콘텐츠를 재구성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도正度로 전달하는 편안한 공간이다.



둘째, 건축물 등 친환경을 고려한 하드웨어적 요소 뿐 아니라 연계 체험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 유니버설 디자인⁸⁾의 개념을 적용하여 포교해야 하는 대상에 적합하게 설계 한다.

셋째, 명상, 체험 프로그램 등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보·과학기술 등을 접목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문명의 이기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불교와 과학의 관계를 제시하여 불교가 전통만을 내세우는 과거의 이미지를 가진 종교가 아님을 알리고, 불교문화콘텐츠가 현대에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의 모티브로 사용되어 재창조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한다.

다섯째, 이 공간을 방문한 사람들이 현재의 순간에서 스스로를 반조하고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 개념, 연기, 팔정도, 수행법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명확하게 알고 실천해 봄으로써 마음의 치유와 회복, 평안을 느끼게 한다. 이는 자신과 법에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숙고하게 한다.

2. 불교문화콘텐츠파크에 참고할 만한 사례

다음의 사례들은 불보살님들의 세계, 극락세계, 불교 우주관, 큰스님들과 조사님들의 삶과 수행, 육도윤회 등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게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제시한다.

1) 영국의 ‘에덴프로젝트’⁹⁾

영국 남서부 콘월지역의 ‘에덴프로젝트’는 첨단기술을 도입한 세계 최대 온실식물원으로 유명

8)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 도구, 시설, 설비 등의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배리어프리된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범용汎用 디자인’, ‘공용화 설계’라고도 불린다. 최근에는 공공교통기관 등의 손잡이, 일용품 등이나 서비스, 건축물, 도로 설계 등 넓은 분야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9) 영국 ‘에덴프로젝트’ 공식 사이트(<http://www.edenproject.com>)

한 곳이다. 이 곳에는 고령토 폐광지역을 세계의 모든 식물을 모아 놓은 거대한 온실 식물원으로 바꾼 성공한 프로젝트로서 식물과 환경디자인의 결합, 식물과 교육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에덴동산’으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영국 정부의 밀레니엄 기획물로 1999년~2006년까지 조성되었는데 ‘인간과 식물이 어우러진 신세계에 이르는 길, 지구가 연출해 내는 웅장한 드라마로 살아있는 것들의 총체’라는 수식을 받고 있다.

열대식물바이옴(HUMID TROPICBIOME), 온대식물바이옴(WARM TEMPERATE BIOME) 및 아열대식물 전시장에는 약 5,000여 종을 대표하는 백만 여개의 세계 각국의 식생이 열대우림, 아마존, 미국 서부 및 지중해 등 지역별·주제별로 조성되어 전시되어 있으며, 환경교육 전용 시설도 있다. 단순한 식물 관람 기능은 배제하고 있으며,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 동선 및 테마를 배치했다. 봄철에는 100만 포기의 구근식물을 식재하고, 여름엔 열대우림 야간 체험행사 등 계절별로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에덴프로젝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는 전체 온실을 구성하는 바로 ‘바이옴’이라는 온실외벽이다. 에틸테트라 프루오로 에틸렌(ETEE)으로 불리

는 이 외벽은 빛 투과율이 97%에 달한다. 세 겹의 특수 플라스틱을 겹쳐 만들었으며 동일한 크기 유리 무게의 1%에 불과하며 유리보다 가볍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다.

2) 독일의 미니어처 테마파크 ‘분더란트’¹⁰⁾

독일 함부르크는 북부 항구 도시이자 산업도시이며 다양한 박물관들이 가득한 곳이다. 이곳에 2000년에 개장한 ‘미니아투어 분더란트(MINIATUR WUNDERLAND)’는 1년에 백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유명한 곳이다. 철도 매니아를 위해 만들어진 미니어처 도시로 무려 10,000여대의 기차가 움직인다.

함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 스칸디나비아 등 8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고, 앞으로 2020년까지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모든 미니어처들은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미니어처 내부에도 카메라를 설치해서 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리한다.

완벽한 미니어처 철도시스템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기차의 움직임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매니아뿐 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준다. 철도 주변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도시모형과 미니어처 사이에 제작된 에피소드로 표현된 장면들, 예를 들면 동독 시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넘는 모습, 고흐의 해바라기 밭에 있는 연인, 경찰 출동 등은 소소한 재미를 준다. 10~20분 간격으로 조명의 변화으로 낮과 밤을 조절하여 밤이 되면 실제 밤이 된 것처럼 각 건물들과 가로등에 불이 들어온다. 관람객들이 좋아하는 섹션 중 하나는 미니어처 공항으로 비행기 이착륙시간을 보여주는 전광판이 있고, 그 시간에 맞춰 항공사별로 이착륙을 한다. ♡

10) 독일 ‘분더란트’ 공식 사이트(<http://miniatur-wunderlan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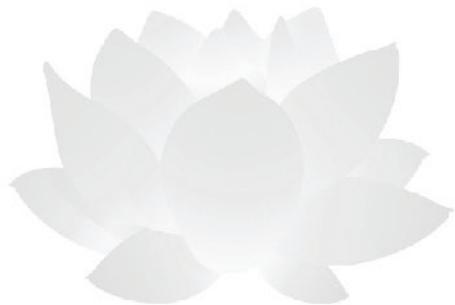


꽃
한 송이
들어 올리신 뜻
알게 하여
지이다.



맑은 삶으로 가는 길

현공 / 사교반



운문사 산문을 조금 벗어나 그림같은 오솔길을 호젓이 걷노라면 가는 길이 곧 힐링이다. 맑은 삶으로 가는길 이란 풋말 끝에 운문사와 역사를 같이 하는 산내 최대암자 내원암이 있다. 원승 국사께서 창건하신 아래, 설송당 연초대사(1676~1750)께서 강석을 열어 후학들에게 학문을 전수했는데 당시 100여명의 학인들이 운집했었고 이후로도 학인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곳이다.

그곳에 계신 혜원 스님을 찾아뵈었다.

인터뷰를 위해 앉자마자 주지스님이신 혜원 스님께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잊혀져서는 안 될 이야기 보파리를 꺼내놓으신다.

“난을 피해 운문사 비로자나부처님은 적천사에 모셨대요. 전쟁이 끝난 이후 노스님께서 직접 재무식차(잔판차)에 부처님을 모시고 오는데, 지금 댐이 있는 자리가 당시엔 다리도 없는 큰 강이었대요. 비가 많이 와서 도중에 차가 물에 뜨니까 동네주민들이 무명천을 갖고 나와 도와주고 해서 겨우 운문사로 모시고 돌 아올 수 있었다네요. 운문사에서는 잊혀져서는 안 될 분이세요. 오백전 불사 때도 화주를 많이 하셨는데, 그 방법이 참 재밌어요. 지인들의 집에 가셔서 아무 말 없이 잠시 쉬신대요. 그러면 알아서 주는 대로 받아오시는 거죠. 뭐를 달라 그런 말 씀은 절대 안하세요.” 수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른스님들의 사랑을 들판 받으며 살았어요. 당시만 해도 운문사에 방사가 부족해서 여기 방에서 10여명의 학인들이 생활했었는데, 급하다고 허둥지둥 몸만 빠져나간 어지러워진 방을 깨끗이 정리해 주시곤 했죠.”

남들이 뭐라 말하든 개의치 않고, 항상 옹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런 어른스님 곁에서 보고 배우는 게 많았죠. 꾸짖어서 꼭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한적한 시간, 고즈넉하게 보낼 때면, 동진 출가로서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중 되길 참 잘했다!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중이 잘됐나! 생각이 들어요.”

노스님께서는 사람을 많이 품으셨다고 한다. 아프고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외면당하고 소외된 스님들까지 모두 아우르시며 참 희생적으로 살아오신 분이시며 대중이 함께 살면 화합이 가장 중요함을 늘 강조하셨다고 한다.

스님의 학인시절과 지금의 학인들에게…

삭발은 운문사에서 하셨지만, 너무 가까운 곳이다 보니 강원은 동학사로 가고 싶으셔서 방부3년을 들이셨고 농업경반일 때 다시 운문사에 오셔서 졸업을 하신 스님. “내가 성격이 태평스러워서 크게 힘든 일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치문반 시절을 보낸 동학사에서 추억이 많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새까맣게 탄 누룽지를 방선 시간에 몰래 먹고 입에 겸댕이를 많이 물렸지.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또, 밤중에 몰래 고무신마다 모래를 잔뜩 넣고, 코스모스 꽃을 하나씩 꽂아



놓는 장난도 치고. 누가 그랬는지는 범인은 못 찾지 뭐. 하하” 범인이 누군가를 찾기에 앞서 그런 낭만과 여유가 참 부럽기만 했다. 지금까지도 도반스님들과 한 번도 논쟁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 서로 이해를 통해 수행자로써의 근기와 인욕을 배운다고 하셨다.

또, 10여 년간 선방을 다니시다 불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내원암에 머물렀다고 하신다. 운문사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겨울철이면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단다. “배고프던 시절이라 둥침이나 꽃감을 서리해가곤 했었어요. 그것도 눈밭에 발자국이 남으니까 신발을 거꾸로 신고 오는 거예요. 내려간 발자국만 있는 것처럼.”

학인들이 양미울 만도 한데, 늘 학인들이 반갑고, 사람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다.

지금보다 울력이 많았던 강원시절, 회주 스님께 불들리면 하루 종일 울력을 하기 때문에 회주스님을 피해 돌아다녔다고 하시면서 회주스님께 화엄반 강의를 들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다.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 그 당시는 소풍을 가면 독후감 아니 소풍후감(感)을 제출했어야 했다고. 그런데 스님 반중의 한명이 ‘별別. 무無. 감感. 정情’이라고 쓰셨단다. 지금까지도 회주스님께서는 만날 때마다 두고두고 “이반이 별무감정 반이지!”라고 놀리신단다.

지금의 학인들은 기개가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씀드리니, 사회에서 오래 생활하다 와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신다. 그렇지만 처음 발심했을 때 초심을 잘 지키는 것이 중노릇 잘 하는 것이라는 말씀. 어른의 꾸중에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되는데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은 좋지 않다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참회할 수 있는 기회와 앞으로 잘 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

리 때는 어른 말씀에 불평불만을 표현 못하고 살았어요. 만족할 줄 알아야 해요.”

지금 학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궁금했다. “인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명료한 한마디. 현재의 상황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겠다는 말씀이 아닐까?





불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1992년부터 22년간 불사를 해 오셨다는데 그 힘이 궁금했다. “멀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안죠. 20년간 자비도량참법, 3000배,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6년, 금강경 기도 그리고 지금은 정도3부경중 하나인 아미타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끊이지 않는 기도만이 힘든 불사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었던 것! 1962년 전통사찰로 지정되었고, 이후 많은 불사로 지금은 예전 내원암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단다.

내원암은 약수로도 이름나있다. “물소리가 시끄러울 정도였어요. 약수를 받아갈 뿐 아니라 온몸으로 물을 맞는 시절이 있었지.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실제로 위장병 등을 고치는 그야말로 약물이에요.” 지금은 수량이 많이 줄어서 좀 아쉽다.

길, 물, 그리고 유리지붕

운문사에 던져진 운명(?)을 한탄하던 치문의 그 어느날. 산문을 벗어나 무작정 걸었었다. 아름다운 길 끝에 잘 정돈된 암자, 대나무 숲 사이 차고 맑은 감로천 약수가 기다리고 있고, 암자의 청기와는 햇볕을 받아 마치 유리지붕처럼 빛났다. 그 반짝임이란 막막한 치문에 눈엔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불사에 스님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무량수전 아미타불(운문사 내원암 석조아미타불좌상 17세기)의 가피 때문일까. 건강은 좋다고 하신다. 자연스러운 야생화로 더 멋스러운 이 도량이 조용하지만 저력 있는 모습으로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和請, 眞理의 노래

무진 / 사교과

안녕하십니까? ‘화청, 진리의 노래’라는 주제로 대중스님과 함께할 사교반 무진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화청은 ‘불교 포교의 한 방편으로 대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민속음악에다 그 교리를 쉽게 이해시키고 신봉하게 하는 사설을 얹어서 부르는 불교음악’으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대중 교화 기능을 지닌 불교 음악인 셈입니다. 화청의 역사는 통일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을 거쳐 전래된 대승경전은 어려운 한자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불교의 귀족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세습을 우려한 선승들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대승의 요지를 쉽게 풀어낸 노랫말에 친근한 우리가락을 붙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화청의 초석입니다.

옛 어른들의 손을 무수히 거쳐 온 만큼, 오늘날 화청의 노랫말은 큰 문학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화청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4·4조의 전통적인 가사체를 인용하는 한편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방식을 띠는데, ‘지극한 마음으로 듣기를 청한다’는 뜻의 “지심 절청 지심절청 / 일회대중 일심봉청 / 거일랑 두어두고 / 여보시오 시주님네 / 이내말씀을 들어 보소”라는 가사로 시작해 불보살님께 귀의하며 끝마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불교의 제법무아諸法無我,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개고一切皆苦 그리고 열반적정涅槃寂靜의 三法印을 일상적인 비유와 언어로 쉽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서산대사 作 〈별회심곡〉의 일부분입니다.

인간 백년 다 살아도 / 병든 날과 잠든 날과 / 걱정 근심 다 제하면 / 단 사십도 못살 인생 ……
 明沙十里 해당화야 / 꽃 진다고 설워마라 / 明年三月 봄이 오면 / 너는 다시 피련만은 /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 다시 오기 어려워라 ……
 선심하고 마음 닦아 / 不義行事 하지마스 …… 바라나니 우리 형제 / 자선사업 많이 하세 / 내생길을 잘 닦아서 / 극락으로 나이가세 ……
 나무 아미타불 / 나무 관세음보살

이와 같이 화청은 역사와 예술적 측면을 아우르는 가치 뿐 아니라 대중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승가 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는 조선후기 결집파, 남사당파 등이 구결을 목적으로 부르기 시작한 화청이 난무함에 따라서 범파승들이 화청을 꺼리게 되

고, 여기에 조계종 정화운동 등이 더해진 복합적인 결과물로 보입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화청은 본래 뜻에서 한참 벗어난 오해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명칭’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화청은 〈회심곡〉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회심곡〉은 엄밀히 말해 〈백발가〉, 〈몽환가〉 등과 함께 그 종류가 무수히 많은 화청의 한 갈래에 속할 뿐, 그 자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화청이 시식의 착이나 고혼 청처럼 영가에게 하는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영산재 등에서 화청이 상단불공 후반부에 불리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뿌리 깊게 박힌 탓인지, 현재 일부 사찰에서는 화청을 부를 때 영단의 위패와 사진 등을 상단 앞에 내려 모시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화청의 주된 청자는 누구일까요? 청은 화합할 和에 청할 請 자를 사용합니다. 오욕五慾에 시달리는 어지러운 중생심衆生心을 화합시키기를 청한다는 뜻입니다. 〈회심곡〉 또한 대중들의 한 마음을 돌이키는 노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즉 화청은 그 법회에 참석한 사생육도의 모든 대중들을 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화청을 들으며 두 손을 꼭 모은 채 눈물을 찍어내던 보살님들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매 구절마다 인간살이의 공도公道와 무상함이 담긴 화청은 그들에게 있어 불보살의 음성이요, 무진법문無盡法門이었을 것입니다. 중생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어장스님의 청아한 염불소리와 재장에 운집한 사부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맨 살갗을 스치는 바람마저도 범음梵音과 공명하는 듯 느껴지는 그 순간을 저는一心이며 不二라고 말하겠습니다. 화청은 불가에서 수천년을 내려온 뛰어난 포교 방편이자 고유 음악인 동시에 승문 권속 모두가 주인으로서 지키고 계승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불교 의식 주변을 감도는 분위기는 초심남자初心衲子 인 제 눈에도 다소 염려스럽습니다. 불교의식 연구 시 불교계 내의 전문가를 찾을 수 없어 외부에서 민속학자를 초빙하거나, 속인 학자들이 화청과 범파를 마치 서양음악처럼 음표화해서 관련 논문집을 내는 등 쓸한 풍경이 승가 전통 의식이 처한 현주소입니다. 심지어 일부 논문은 공공연하게 비구니를 ‘여승’이라고 명기하고, 승려를 속명으로 표기하는 등 불교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미비하다는 사실 또한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일반 학자들에게 있어 불교의식은 ‘연구대상’인 단순 기능일 뿐, 수행 방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식이 문서화되어 학계에 보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머지않아 불교의 존엄성은 크게 추락하리라 예상됩니다. 불교의식은 가사장삼을 수한 우리의 모습을 가장 승려답게 해주는 전통이자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전하는 無上法門입니다. 이러한 전통에 대해 바로 알고 보는 것이 이 땅의 불법을 수호함에 있어 굳센 지지대가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법문이 대중스님들의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퍼지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



운문, 운문인





문복산



천문사



배넘이골



내원봉



사리암

갈김길



학심이골

학심이골

상운산 귀바위



운문령



쌀바위



심심계곡



가지산



석남사

38

운문사 등산코스

운문사 ○ 호계교 ○ 명태재 ○ 대비저수지 ○ 대비사 ○ 미륵당

1

호계교를 지나 논길을 따라 가다보면 주차장 건너기 직전, 좌측에 등산로가 있다. 길을 따라 능선에 올라 서면 《범2봉, 대비사, 장군바위》 갈림길인 명태재가 나온다. 대비사 방향인 중앙 오솔길로 내려간다. 이길을 따라 내려가면 파란색 지붕의 조립식 건물을 만나는데 이곳이 출구다. 출구에 내려서면 '출입금지'라는 맷말이 놓여있는데, 산이 가파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등산로는 폐쇄된듯하다. 대비저수지를 끼고 도로가 보인다. 좌측은 대비사, 우측은 미륵당으로 향한다. 거리관계상 대비사 잠배후 미륵당으로 향한다.

운문사 ○ 북대암 ○ 복호산 ○ 지룡산 ○ 내원봉 ○ 사리암계단 ○ 사리암주차장

2

북대암 대웅전 좌측으로 등산로가 있다.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스키아리운지를 지나, 소나무 의자를 지나, 복호산에 이른다. 복호산에 이르면 이정표가 나온다. (신원삼거리, 지룡산, 북대암)이다. 지룡산 방향인 중앙으로 내려간다. 지룡산을 지나 내원봉, 삼계봉을 지나 삼거리에 (배님이골, 사리암) 갈림길이 있다. 갈림길을 따라 우측으로 내려가면 사리암 계단으로 합류한다.

*복호산에서 신원삼거리, 운문사 정류장 쪽은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암벽구간이므로 등산시 위험하다

3

운문사 ○ 문수선원 ○ 사리암주차장 ○ 갈림길 ○ 학소대

사리암 주차장에서 통제소 쪽으로 (현재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2016년 2월까지 출입금지) 큰길을 따라 가다보면 갈림길에서 (학심이골, 심심계곡) 맷말이 나온다. 좌측 학소대를 향해 한참을 가다가 우측에 작은 오솔길로 빠진다. 바위에 희미하게 화살표가 있으나 찾기가 힘들다. 초행에는 찾기 어려우니 경험자와 함께 하는게 좋을듯 하다.

4

운문사 ○ 문수선원 ○ 사리암주차장 ○ 갈림길 ○ 심심계곡 ○ 아랫재 ○ 가지산 ○ 쌀바위 ○ 상운산 ○ 귀바위 ○ 운문령

사리암 주차장을 지나 갈림길 (학심이골, 심심계곡)에서 우측 심심계곡쪽으로 향한다. 심심계곡은 똑같은 풍경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길도 평坦해서 거기가 거기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심심계곡이라 이름 하는지 모른다. 지루한 심심계곡을 지나 아랫재에서 (가지산, 운문산) 갈림길에서 좌측 가지산으로 향한다. 가지산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아름다움을 금치 못한다. 가지산에서 쌀바위, 상운산, 귀바위를 지나 운문령으로 내려간다. 운문령에서 버스를 타고 운문사로 간다. 버스는 2~3시간 간격으로 있으니 미리 시간 확인할 것.

5

운문사 ○ 문수선원 ○ 사리암주차장 ○ 갈림길 ○ 심심계곡 ○ 아랫재 ○ 운문산 ○ 딱발재 ○ 뭇골 ○ 문수선원뒷길 ○ 운문사

사리암 주차장에서 심심계곡을 지나 아랫재에서 [가지산, 운문산] 갈림길에서 우측 운문산으로 향한다. 운문산에 도착해 진행방향으로 계속 가다보면 딱발재가 나온다. [억산, 운문사] 갈림길에서 우측 운문사로 내려간다. 내려가는 길은 나무가 우거져 등산로는 흔적만 거의 보인다. 경사가 많고 등산로를 찾기 어려우므로 산행시 주의를 요한다.



대만, 수행자가 사는 세상



예전엔 사막을 지나고, 먼저 떠난 순례자들의 해골을 이정표 삼아 목숨을 걸고 구법의 길을 떠났다.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가듯 가볍게 떠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1000년 전의 현장스님만큼 진지하고 간절하게 결망을 맴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우리나라와 제법 닮은 작은 섬나라 대만이다. 대부분 대만불교를 돌아보고 온 이들은 그들을 부러워할 뿐 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대만불교를 본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대만불교의 복지포교, 대중포교, 대중교육, 수행시스템, 등등 거의 모든 것이 한국불교에 귀감이 되기 때문이다.

대만불교

사실 대만불교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심각한 침체를 겪었다. 지식계층은 주로 개신교를 믿었고 불교계는 기복 신앙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만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일본불교 영향아래 출가자의 혼인과 육식을 허용하고 신도神道와 결합되는 등 왜색불교화 되면서 정체성을 잃어갔던 것이다. 그러다 해방과 함께 서서히 일본불교를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았고, 집과 속세를 떠나 승려의 위의를 갖춘 자에게만 계를 수여하고 자율적인 정화운동을 펼쳐나가면서 계율의 불교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그 결과 지금은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는 것이 대만불교의 힘이자 원동력이며 큰 특징이 되었다. 계율에 엄격한 대만불교와 계율에 자유로운 일본불교의 가운데쯤에서, ‘수계’는 했으나 ‘지계’ 하지 못하는 한국불교의 모습과 나아갈 바를 돌아보게 하는 바이다.

신도 100만명, 전 세계 33개 국가 200여 분원을 운영하며 대만불교를 대표하는 불광산사, 전 세계 400만 회원을 자랑하는 국제적인 구호단체인 자제공덕회, 중화불학연구소, 법고산불교대학 및 불교대학원을 통해서 수준 높은 불교교육과 전법 인재를 양성하는 법고산사, 1천여 출가자와 수십만 재가자가 중국 선종의 중흥을 꾀하며 세계 최대의 선종 도량을 건립한 중대선사가 신흥 4대 종문으로 대만불교를 대표하고 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원력과 문화의 힘, 불광산사

제2의 도시 카오슝에 위치한 불광산사. 일단 불광사에 도착하면 그 거대함과 웅장함에 놀라 입이 딱 벌어진다. 불광산사 옆의 불타기념관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거대한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고 그 본관에는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는 옥불관을 비롯하여 관음전, 박물관등등 둘러봐야 할 곳이 여러 곳이며 시간도 오래 걸린다. 또한 불광사의 대웅전, 정토동굴, 선수행실, 국제회의실, 사경실등 그 규모가 하나

의 불교도시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사찰규모에서 한번 놀라고 내부에 들어선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컨텐츠에 두 번 놀라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활기찬 스님들의 미소는 그 도시를 살아 움직이게 한다. 인상적인 점은 박물관과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조형화해 놓은 정토동굴, 화려한 영상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시각화한 전시관등 문화와의 접목을 시도하여 불교를 즐기고 느낄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절들이 기도나 의례를 위한 공간이라면 이곳 절은 교육과 포교, 토론, 문

화의 중심으로 채워져 있어 참 부러웠다.



생활과 포교의 힘, 자제공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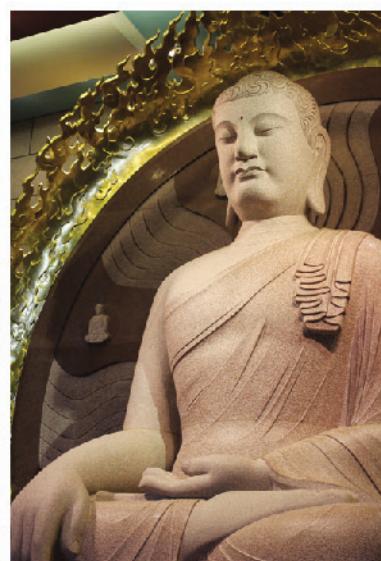
두 번째 우리가 만난 곳은 그 유명한 자제공덕회, 비구니 중엄스님의 원력으로 작은 병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구호단체가 되어 국가와 종교에 상관없이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 심지어 교회도 지어주어 불교의 차별 없음을 잘 보여준 곳이다. 또한 구호의 손길이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모습도 어느 구호단체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구니 스님이 일군 도량이여서 여성불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며 이곳 비구니 스님들은 철저하게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농사는 물론,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생활용품으



로 만들어 사용하고 어느 것 하나 함부로 버리지 않은 겸소한 생활과 승속을 구별하지 않고 금주와 금연을 포함한 십계를 지키고 있다. 중엄스님은 자비의 실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활 속에 들어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생각했다. ‘산속에서 도만 닦아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는 우리나라 불교의 비판에 대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룰모델을 만난 것 같다. 스스로의 삶에서는 겸소하고 철저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관대함은 다시금 나를 돌아보게 했고, 여성성의 궁정성과 역동성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선 중심 도량, 중대선사

중대선사는 멀리서도 그 중앙의 탑을 볼 수 있을 만큼 웅장하다. 불광사의 웅장함과는 또 다른 장엄함이다. 건물 높이만 108m(34층)에 이르며 설계만 3년 공사기간은 7년에 걸쳐 2001년에 완성했는데, 현대적인 미를 잘 살려 장대한 규모와 세련된 외관이 매우 아름다웠다. 장대한 규모답게 그 속에 모여진 다양하고 장대한 부처님도 보자마자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 탄성이 절로 나온다. 1층 대웅전 외에는 촬영이 철저히 금지되고, 안내하는 스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갈수 없는 곳이 많아서 안타까웠지만, 이 절이 있기까지



개산조인 유각스님의 원력과 이 곳 스님들의 많은 노력을 생각하니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중대선사가 있기까지는 철저한 스님들의 교육불사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니 여러모로 부럽고 부러울 때이다. 이 절을 창건하신 유각스님은 선사로 유명하며 그 영향력도 막강하여 선 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선 사상의 종흥을 꾀하고 있다. 이곳 대만도 스님 한분의 원력과 영향력이 참으로 큰 것 같다. 우리가 스님들의 교육에 힘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의 힘, 법고산사

아쉽게도 마지막 여정지는 타이페이에서 그리 멀리 않은 곳에 위치한 법고산사. 단아하고 세련된 대학 캠퍼스 같은 느낌이다. 이곳은 성엄스님이 설립한 곳으로 스님과 재가신도들이 차별 없이 불교를 연구하고 수행하고 있다. 법고산 승가대학, 불교학연수학원, 중학불학연구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출가자와 재가자를 교육시키는 교육중심의 도량이다. 그래서 그런지 자원봉사자들도, 사찰 내부의 분위기도, 뭔가 자유롭고 활기차면서 학구적이다. 내부엔 첨단 현대화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고 곳곳엔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며. 밖에는 부처님 이 조성되어 있는 산책길도 있어 공부하기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보인다. 관세음보살님을 참배한 후 관세음보살님이 내려주시는 감로수를 선물로 받았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곳 관세음보살님은 영험하기로 소문이 났다고 하니, 더욱 좋을 뿐이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대만을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들은 말은 ‘아미타불’ 인사였다. 어디서든 스님과 불자간에 ‘아미타불’ 하며 합장한다. 대만불교의 역동성과 창의력, 계율에 대한 철저함과 청정함은 한국불교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원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이번 여정을 마무리 하며 크나큰 부려움과 함께 아미타불을 들으며 인사할 때의 그 따뜻함이 아직도 남아있다. 언젠간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도 기대해본다. 아미타바!!!

끝으로 이번 여정의 길에서 나의 도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이란 길과 구도의 길에서 서로 이끌어 주고 위로가 되어 줄 수 있는 선지식과 같은 도반이 되어줄 수 있기를… ♡

대장부의 길

효주 / 사교파



방학을 이용하여 작은 개인 사찰에서 부전소임을 살게 된 기회가 있었다.

출가 때부터 계속 대중생활만 해왔었는데 개인 사찰에서 살고 계신 스님 네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분은 도심 한가운데서 교육과 포교에 주력하시고, 한분은 시골 이웃들과 함께 농사지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계셨다.

두 분 스님 다 스님 된 복을 감사하며 부처님 은혜를 갚고자 나이에 넘치는 정력으로 인연 있는 신도들과 더불어 바쁜 삶을 살고 계셨다.

성큼성큼 늠름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시는 스님들을 보면서 나의 10년 뒤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

갓 계를 받고 왔을 때 어른스님께서는 10년간은 모든 관심을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라고 당부하셨다. 좋은 수행을 통해 변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만족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신심을 잃고 수행이 아닌 매너리즘에 빠지는 스님들이 많다고 하셨다.

‘왜 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접어둔 채, 생활에 떠밀려 다니는 삶에 지쳐 있을 때 불교를 만났다. 이 무의미한 윤회의 고리를 끊고 부처님이 보신 진리를 나도 보리라는 원을 세우고 출가하였다. 저녁이면 지쳐 쓰러지면 치문시절이 지나고 상반이 될수록 몸도 마음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긴다. 이제 승가는 풍요롭고 옛날에 비해 갈수록 일도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깊은 산중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바깥세상을 엿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수행이 아닌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바쁜 하루의 일정을 따라가며 적응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내 속에 기도가 없고 참회가 없이 신심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助響巖穴豆 爲念佛堂하고 哀鳴鴨鳥豆 爲歡心友니라 拜膝이 如水이라도 無戀火心하며 餓腸이 如切이라도 無求食念이니라 忽至百年이어늘 云何不學이며 一生이 幾何畔대 不修放逸고 離心中愛를 是名沙門이요 不戀世俗을 是名出家니라”

옛 스님들은 바깥의 경계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고 철저히 자신에 집중하기 위해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셨다. 지금은 온 세계가 열린 세상이 되었고 승가환경도 예외없이 열려있어 예전처럼 수행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지만 수행하는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고 웹으로 염불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스님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 뒷고’를 해야 할 것이요, 경전을 보고, 기도정진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리이타의 원력이어야 할 것이다.

“出家爲僧이] 豈細事乎이] 非求安逸也며 非求溫飽也며 非求利名也라
爲生死也며 爲斷煩惱也며 爲續佛慧命也며 爲出三界度衆生也라”

“출가하여 승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안락함을 구함이 아니요
따뜻하고 배부름을 구함이 아니요 이익이나 명예를 구함이 아니며
생사를 위함이요 번뇌를 끊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혜명을 잊기 위함이며 삼계를 벗어나 중
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라”

승이 된다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가히 대장부의 길인 것이다. 수행의 힘으로만 당
당하게 갈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처음 승가에 들어왔을 때 정랑에 쓰여 진 ‘입축오주’를 보고 어떤 순간도 수행으로 승화하
려는 스님들의 노력을 보며 감동했었다.

오늘 다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어 본다. ☺



[윤호 현요에게]

정성껏 써서 보낸 서신과 함께 귀한 밀가루 잘 수지하였다.
드디어 부처님 제자로 입문한 것을 축하한다.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아도 바로 그 자리인 것을 너는 참으로 많이도 돌도 돌아서 온 것 같구나. 다행히 훌륭하고 따뜻하신 은사스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경봉스님께 들었다.

고맙고 기쁘구나.

하지만 현요야!

온사스님과 그 누구에게고 인간적인 정을 기대하는 것은 사문의 자세가 아닌 것임을 잘 알리라 믿는다, 배웠겠지만 인정이 농후하면 도(道)의 마음이 성글어진다는 경구를 명심하기 바라고 싶구나.

나는 어느 한 순간도 네가 사문이 아닌 것을 생각한 적이 없다.

아주 아주 아기때 부터… 말이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꽃자리임을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기 바란다,
너에게 냉정할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을 이미 알아들은 듯 하여 고맙구나.

노스님, 은사스님 잘 모시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란다,

항상 건강하고 부디부디 부처 이루시기를 발원 올립니다.

네가 수행 잘 하고 있는 소식이 송불암 스님들과 나에겐 가장 큰 선물이란다.

소쩍새 우는 밤

평안사에서 大用 付

스님! 현요입니다.

법체 강전하시고 여전히 청안 하시온지요. 순간마다 기적의 시간을 살고 있었는데도 미처 보지 못했던 긴 시간이 흘렀고, 요즘은 들고 나는 숨들이 긴지 짧은지 때론 숨죽이는지를 바라보며 햇살을 받아들이는 꽃들처럼 바람에 몸을 맡기는 나무 가지처럼 저 또한 우주와 자연을 의지하는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익히고 있습니다, 행자 시절…,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걸음걸음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부를 때 문득 “손바닥에선 풀 한포기 나게 하지 못하는 내가 빛낼 수많은 생물이며 온갖 생명들을 감히 밟고 다녀도 될까?”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일들 중 죄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과 소소한 알음알이에 대해 자신만의 철칙과 관념 속에서 가까스로 수계를 받은 후, 윤문사에 입학을 하고 나서는 혼자 밖에 몰렸고, 자유로움이 좋았던 저는 제법 큰 몸살을 치문 속에서 보낸 듯합니다. 의외로 사집은 텃밭에 잠시 나가 있었고, 그리고 사교는 후원 울력을 묵묵히 몇 번 했을 뿐이었고 틈틈이 가는 사리암 몇 번이 고작인데 벌써… 졸업이 코앞인 대교반입니다.

윤문사를 졸업하신 선배스님들의 큰 대중에서 배워야 한다는 이구동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180명 대중 속에서 4년을 함께하고 수행의 크고 작은 틀을 맞추며 화합을 배우는 것 자체가 근기를 키우는 가장 큰 밑거름인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지만 의지만큼 노력만큼 참는 것이 인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만큼 자기 그릇이 만들어 지는 곳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쉬어야 밟아지는 자리! 오온이 자연히 그대로인 산하대지가 담백한 세상. 중생의 눈에는 경계가 그대로 현현하고 메아리도 그림자도 없는 부처님 자리에 간절히 두 손 모읍니다. 언젠가 스님께 “대중 생활을 어찌 해야 합니까?” 하니… “불변과 수연”이라고 하셨죠. 졸업을 앞둔 화엄의 가을… 이제 서야 대중생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며 한 몸처럼 지내는 승가의 규율과 삼보의 위대함과 세상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철이 든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요. 이 또한 감사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마음 깊이 머뭅니다.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시주님들의 은덕과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크고 작게 힘을 써주신 시절 시절마다 스승님의 은혜와 염려 제가 자랄 수 있도록 끝없이 옹호해주시는 불보살님과 신장님께 간절히 정성 모아 참회와 감사기도 드립니다.

기꺼이 모든 중생위해 회향하는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부처님전을 곧게 합장하기를 오늘도 연습해보며 스님! 부디 뵙는 날까지 康寧 하시기를 빌고 뵙겠습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마하반야바라밀

“바라보는 시각”

보경 / 치문반

뜨거운 여름의 뼈약볕 아래에서 마냥 푸르기만 했던 나뭇잎이 어느덧 노랗게, 또 빨갛게 물들어 기는 가을입니다.

저녁 예불을 모시려 가기 전 경상 자리에 앉아 그냥 나무 한 그루를 보고만 있다가 문득 “내가 나무를 보는 것처럼 나무도 나를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의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강원 입학을 앞두고 겨울을 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바람에 치문 첫 철부터 ‘병고자’로 들어와 도반 스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칼칼한 기운이 남아있던 초봄에 들어서 운문사 청풍료에 방부를 들이고 난 후 모든 것이 서툴러 실수투성이인 데도 하루 동안의 일과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허둥지둥에서 허둥지둥으로 끝나는 도반 스님들 속에서 저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이리 저리 짐만 지워 놓고 첫 철이 끝나갈 때 즈음 조심성 없이 또 부상을 당해 남는 방학마저도 공식적인 ‘병고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치문반만 남는 방학 동안 석차례나 법고부터 시작해서 많은 소임들을 다양하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아쉬운 마음에 저의 얼굴에서 잠깐동안 미소가 결혔습니다.

이 때 제가 바라본 운문사는 저만 빼놓고 모두들 너무나도 분주하게만 보였고… 한 쪽 다리로 목발을 짚고 목격지로 가기 위해 땅만 쳐다보며 걸어도 걸어도 제자리였기에 운문사 도량이 한 없이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부지런히 흘러 방학이 되었고, 온 도량 곳곳에서 맡은 소임들을 척척 살아내는 도반 스님들이 정말 최고로 멋진 스님들로 보였습니다.

방학 동안 두 번에 나뉘어서 번갈아 출타를 다녀오느라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병고자인 저를 위한 도반 스님들의 고군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밥을 떠다 나르고 꽉 막힌 지대방에서 저와 함께 공양 한 끼 맛있게 드셔주시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의 빨래를 책임져 주는 도반 스님들.

그런 도반 스님들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에 뭐라도 하려고 해 보아도 제 몸 하나 뜻대로 움직이기도 버거움을 느끼고는 가만히 앉아 보내는 시간동안 “빛 지기는 쉽지만 복 짓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오래도록 참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시작으로 본 저의 봄철은 부끄러울 만큼 푸르렀으며,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던 방학이 끝나고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분주하고 유난히 혹독하게 더운 날씨에 숨 한번 들이 쉬기도 텁텁한데 묵묵히 열굴한번 짜 푸리지 않고 방학동안 소임들을 살아본 경험으로 한결 더 익숙해진 손길과 발길로 살아가는 도반스님들을 보았습니다.

잠깐씩 비춰지는 여유로움을 지켜보며 여태껏 빨리 나아서 맡은 소임 열심히 살다보면 나도 도반스님들처럼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마음 내려놓았던 것이 한 순간 그래도 먼저 두 철을 겪어본 시간은 무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고개가 숙여지면서 “나는 정말 잘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냥 아직 젊어서 에너지 넘치는 사람일 뿐이구나…”라는 생각만으로 저의 여름철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며 기다리던 가을철에 접어들어 그 동안 늘 열외였던 소임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문 첫 철에 도반스님들이 그려했듯 저 또한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음에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나는 지금이 치문 첫 철이다.” 라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도반스님들에게 물고 물어가며 처음부터 나 홀로 치열한 가을의 초입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멀쩡할 때 걷는 100M의 거리는 그냥 100M일 뿐이지만 한쪽 다리로만 걷는 100M는 1Km가 될 수 있듯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마음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푸르렀고, 유난히 뜨거웠으며, 시작부터 치열한 운문사를 살아온 치문반 스님이 다가올 치문의 마지막 철과 사집반 때의 사계절, 사교반 때의 사계절, 화엄반 때의 사계절을 생각지 못 할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시절을 상상해 보며 가만히 훤을 내려 놓습니다. ●

자비송과 함께한 여름방학

도우/사집파

혹시 대중스님들께서는 자비송이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자비스럽게 만들어주는 노래 한곡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대중스님들이 떠난 여름방학철의 운문사를 지키는 사집반의 일원이 되어 보낸 운문사의 여름은 때로는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을 만큼 바쁘고 힘이 들었습니다. 한가로움과 편안함을 만끽하며 지난 겨울 방학을 보냈던 기억에 이번 여름 방학에도 그동안 못 읽던 책도 읽고 좋은 영화 한 두 편 보며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가 많았던 방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如夢幻泡影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평균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지만 습도가 낮아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지만 이곳은 습도가 높은데다 예년보다 더 높은 기온은 조금만 움직여도 끈적끈적 땀이 흐르고 몸을 금방 더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더 많이 심어 놓은 고추는 대추알만큼이나 주렁주렁 매달려 아침에 따고 저녁에 따도 실시간으로 빨갛게 익어가며 원두반을 끊임없이 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힘겨운 원두반의 운력과 하루 두 번씩 올려야하는 오백미 불공기도의 일정과 자비참법 기도와 묵법연화경 독송 등, 아이돌스타의 스케줄만큼 바쁜 하루 일정들 속에서 ‘외국어speech대회’라는 생뚱한 대회에 단체팀으로 참가해야하는 임무까지 보태어졌습니다. 자의가 반의반도 안 되는 결정으로 그렇게 시작된 speech대회 연습은 마음속에서 성냄과 중오와 격정을 차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의 불편함들을 꾹 참고 이러한 형태로도 해보고 저러한 형태로도 해보고 재능 많은 여러 스님들의 재능과 지혜를 모으고 수렴하면서 speech 대회 대본을 완성해나갔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합창으로 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이 자비송이라는 노래를 접하게 된 인연입니다.

방학 기간의 바쁜 일정도 일정이었지만 그 무렵의 제 마음엔 반스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성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던 성냄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되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래까지 불러야 하는 것은 정말 즐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노래를 배우려 선 열당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얼굴이 굳고 잠은 쏟아지고 짜증만 났습니다.

그러나 자비송이라는 아름답고 자비한 노래는 정행스님과의 만남이라는 인연을 하나 더 맺어주었습니다.

노래를 지도하려 오신 정행스님은 굳은 얼굴로 앉아 꾸벅 꾸벅 졸고 있는 우리반 스님들을 진심으로 밝은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길을 달려오셨는데 그런 얼굴로 앉아있는 학생들을 보면 화가 날 법도 했지만 얼굴 한번 안 찡그리시고 역정 한 번 안 내시고 오히려 우리를 달래주셨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때로는 지나간 시절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가운데 나는 이야기들, 자비송에 걸맞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행스님의 노래지도를 받는 시간만큼은 얼굴에 밝은 웃음을 띠고 맑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요를 여의어지이다, 제가 성냄을 여의어지이다, 제가 중요를 여의어지이다,’라는 노래 가사를 음미하며 제 안의 성냄과 중요와 격정을 없애려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비송을 연습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질수록 반스님들 얼굴도 점차 밝아지고 맑아지는걸 보면 ‘다들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노래를 부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운력시

간에 짜증내는 도반들에게 “자비송 부르는 스님이 왜 그래~”하는 농담도 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조금씩 찾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동안 아주 큰 수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음에 성냄과 중요와 격정이 차오르지 않도록 살피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여름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며 더욱 익어가는 열매들처럼 한층 더 성숙해지고 커진 원두반, 사집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열린 예선전에서 큰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본선 진출을하게 되었습니다. 예선전을 끝내고 운문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다들 좁은 의자에 기대어 지치고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행복하고 편안한 얼굴로 정신 없이 잠들어 있는 도반스님들의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도반들

임을 다시 한 번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도 마음속에 화가 나고 중요가 일고 격정이 일면 자비송을 들으며, 자비송을 부르며 가사를 음미하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자비한 마음을 되찾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마베로호미~ 아바바자호미~ 아니도호미~ 수키아다남 바리하라미~

저의 부모님 스승들과 친척들, 친구들도, 거룩한 삶을 닦는 이, 그분들도 중요를 여의고, 성냄을 여의고, 격정을 여의어지이다. 그분들이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지이다. ♡



부처님을 닮아가기를 발원하며…

자명 / 사교과



모든 중생의 죄를 참회합니다.

이 온전한 몸으로 절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중생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발원합니다.

행자 때부터 항상 절을 하면서 해온 발원문이다.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 싶지만, 그러나 발원처럼 늘 바른길만 따라 온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른 길, 잘못된 길을 오락가락하면서 방황을 할 때마다 기도의 힘과 많은 스님들의 공덕으로 바른길을 찾을 수 있었다.

행자 때부터 어른 스님들께 인사를 가면 자주 들판 말이 “중 노릇 잘 해라”였다. 그러나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도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은사스님께 여쭤봤다. 스님께서는 “중 노릇 잘 하는 거 그거야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고, 예불 잘 하고 그러면 중 노릇 잘하는 거지.” 하셨다. 어린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응?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고, 예불 잘 하는 거? 그게 중 노릇 잘하는 거라고? 물음표 수 만개가 머릿속을 지나갔다. 뭐지? 무슨 말씀이지? 물음은 그대로인 체 개학을 맞았고, 운문사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다. 혼란스런 현실 세계와 내가 갖고 있는 이상세계가 충돌해, 몸도 마음도 아팠던 치문이 지나고 사집이 되어 맞은 방학… 문경에 계신 노스님께 며칠 가 있던 그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교가 된 지금까지 가슴속에 남아있다.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데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수행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다. 수행 생활에 소홀해지거나 게으른 마음이 일어나면 한 번 더 이 말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다.

노스님께서는 사미니인 나를 쉬게 하시고 직접 도량석과 쇠를 내리고 예불을 올리셨다. 아랫사람들이 불편 할까봐, 다들 잠든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셨다. 또한 “차를 마시면 아랫사람들이 할 일이 많아진다”고 하시며, 공양 후에 차대신 물을 드시는 노스님을 보며 그 모습을 닮아 보려고 노력한다.

또, 행자 때 밭에 일하러 가면 “자명아, 이 상추 따는 이놈은 뭔고… 하면서 하라”고 일러주시던 주지스님, 아무것도 모르는 행자를 데리고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챙겨주던 원주스님, 선방에서

기다리겠다며 빨리 강원 갔다가 오라고 하던 별좌스님, 치문 때, 현실과 이상사이의 충돌로 아파하던 당시 사형처럼 보살펴주신 스님, 너무 아파 견딜 수 없어서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스님, 아프면 고치면 되지 그만 둘 생각을 왜 하냐”며 병원에 가서 몸 상태를 알아보자고 하던 도반스님, 그리고 중 생활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은사스님…

한 사람을 스님으로 만들려면 여러 스님의 공덕이 필요하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날,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모든 대중스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스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원에 있는 지금, 한발 한발 천천히 가지만 노력하면 나아가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는다.

사실 부처되는 공부라고 별 다른 것이 있을까?

그런데, 나는 내 몸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소임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웃의 일들에만 눈과 귀가 쏠린다. 이런 일로 인해 진짜 공부에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나의 잘못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은 옆 사람을 시비하는 대신 자기 스스로를 비판해야 한다는 뜻, 자신을 뒤틀어보고 알아차려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그리고, 도반 스님을 도와주려고 한 일이 도리어 그 도반 스님한테 폐가 되기도 하고, 그 당시엔 나빴다고 느꼈던 일들이 지나고 보면 더 좋은 일이 되어있기도 하고, 잘 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일도 있었기에, 지금은 행동 하나에도 더욱 신중하고 말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럽다.

그렇기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중오, 자만, 질투의 감정들을 바르게 회향하기 위하여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자문하곤 한다. 매일 매일 자신에게 물어 내면의 일에 더욱 집중해서 알아차려야 할 일이다.

성철스님의 말씀 중에

자기를 바로 봅시다.

현대는 물질 만능에 휘말리어 자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큰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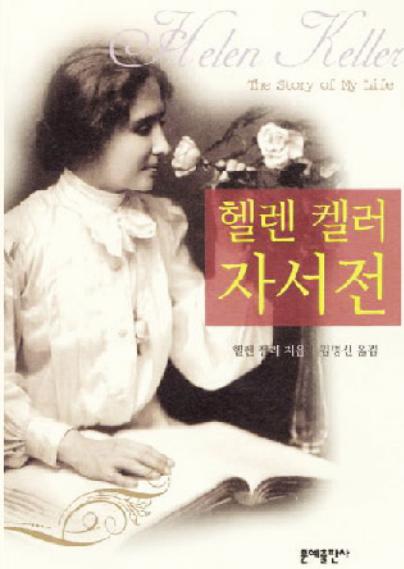
바다를 봐야지 거품은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바로보고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또 한 번 예불을 올리고, 다시금 절을 하고, 쉼없는 독송을 한다. 그리고 '잘못하다간 시간 먹는 벌레가 되고 말 것 같다'는 도반스님 말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바로 보면서 노력하다 보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

헬렌 켈러 자서전

범수 / 운문승가대학원 1학년

헬렌 켈러. 태어난 지 열아홉 달 만에 시각과 청각을 잃은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몇 해 전, “단언컨대”라는 말을 유행시켰던 휴대전화 광고를 눈여겨 본 사람이라면 다채로운 색감 또한 인상적이었던 그 광고에 인용된 문구가 헬렌 켈러의 자서전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The story of my life(내가 살아 온 이야기)〉라는 원제보다도 더 유명한 에세이 제목 〈시흘만 볼 수 있다면〉이 국내에서 출판되는 헬렌 켈러 자서전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장애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그 장애를 이겨낸 인생 자체에 대한 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일 단 사흘만이라도 앞을 볼 수 있다면, 가장 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나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펴는 동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흘만 볼 수 있다면 내 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셋째 날이 저물고 어둠이 덕쳐올 때,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한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자, 이제 그 시흘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여러분의 눈길을 어디에 머물게 하고 싶습니까?”

헬렌 켈러는, 그녀의 눈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본다’는 행위를 상상하며 손끝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을 설레임 기득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어떤 이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려내는 색채와 이미지 넘실거리는 문장을 보고, 외부로부터 주입된 지식을 늘어놓았을 뿐이라며 그녀의 자서전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의 문장에는 분명 어떤 설렘이 있다.

지난여름 호거산을 뒤덮었던 짙푸른 초록빛이 어떤 느낌이었더라, 오는 가을 풍요롭게 넘실거리는 장군평 너른 들판은 또 어떤 빛깔일까!

본다, 그리고 듣는다. 헬렌 켈러로서는 생경하기 그지없는 이 감각들을 부처님은 18계十八界라고 이름 붙이셨다. 인체 기관인 육근六根 즉 눈과 귀, 코와 혀, 몸과 생각(眼耳鼻舌身意)에 각각 빛깔과 소리, 향기와 맛, 촉감과 존재(色聲香味觸法)와 같은 육경六境이 맞닿고 이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감각의 성립과정이 18계다. 결국 보고 듣는다는 행동은 대상(육경)에 대한 감각기관(육근)의 작용 과정일 뿐이다.

그런데 일체 사물과 마음의 현상이라 하는 것은 늘 생멸하고 변화하므로 고정된 실체라 할 것이 없다. 또한 변화하는 일체 사물과 마음의 현상은 인연, 즉 원인과 결과를 따르므로 언제 어디서라도 고정되어 그 모두를 관찰할 수 있는 나 역시 없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중생들과 달리 부처님은 몸소 생사를 윤회하는 고통에서

Helen Keller

내가 만일 단 사흘만이라도 앞을 볼 수 있다면…

벗어나 보이시며 모든 욕망의 불을 끈 상태를 설하셨으니, 이것이 제행무상諸行無常 · 제법무이諸法無我 · 열반적정涅槃寂靜의 삼법인三法印이다.

즉 중생들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이 고통인 줄을 모르고 사는데, 이러한 고통은 인연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일으킨 집착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열반적정의 세계를 부처님이 직접 열어 보여주시면서 부처님과 똑같은 깨침으로 이를 수 있는 수행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이것이 곧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四聖諦의 가르침이요, 팔정도八正道의 수행법이다. 그리고 그 길의 입구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정견正見. 바로 보고 있느냐. 바로 보아라!”

한 평생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세상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생생하게 그려낼 줄 아는 헬렌 켈러의 글을 보고, 부처님의 첫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았다.

내 눈과 귀에 닿는 것들을 바로 보고 바로 들었을까. 내 코와 혀, 몸에 와 닿는 것에 좋고 나쁨만을 가려 쓸데없는 화를 내며 살지는 않았던가.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어리석게 살아 온 것은 아닐까. 과연 나는 당연하게 주어진 내 감각들을 고맙게 여기면서 바른 견해(正見)를 가지고 바른 생각(正思惟)을 하며, 바른 말(正語)을 하고 바른 행동(正業)을 하며, 바르게 생활(正命)하고 바른 노력(正精進)을 기울여 항상 정도를 생각(正念)하고 바른 수행(正定)을 했던가.

“앞을 볼 수 있게 된 둘째 날,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전율어린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장님이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힌트-시각이란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답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 사람처럼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감각기관에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 귀가 안 들리게 될 사람처럼 음악 소리와 새의 지저귐과 오케스트라의 강렬한 연주를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촉각이 모두 마비될 사람처럼 그렇게 만지고 싶은 것들을 만지십시오. 내일이면 후각도 미각도 일을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고, 맛있는 음식을 음미해보십시오. 모든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연이 제공한 여러 가지 접촉방법을 통해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지만 단언하건대 모든 감각 중에서도 시각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축복입니다.”

흔히들 사람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바른 스승 만나기 어려우며, 바른 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사람 몸 받아 태어났고, 부처님이라는 바른 스승을 만났다. 더군다나 헬렌 켈러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을, 우리는 늘 맞이하면서도 모른 채 지나쳐 버리기 쉽다. 깊은 어둠을 가로질러 울리는 도량석 소리는 오늘도 그랬든 내일도 누군가에게는 경이로운 순간이 되어 하루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은 어제와 다름없는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 위대한 스승은 훌륭한 제자가 있어야 하고, 훌륭한 제자 역시 위대한 스승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잠시… 훌륭한 제자란 어떤 걸까 눈을 감고 생각해본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가을 오후 운문사, 암은방이 책상 앞에서 가만히 범화경 펼쳐 볼 일이다. ●

관계關係를 관계觀界하다

제석천이 살고 있는 궁전에는 인드라라는 거대한 그물이 있는데 그 마디마디에 달려 있는 무수한 보배구슬은 빛의 반사로 서로가 서로를 반사하고 그 반사가 또 서로를 반사하여 빛이 무궁무진하다고 한다. 이를 이름하여 인드라망이라 하는데, 화엄에서는 세계의 존재를 이 인드라망으로 비유한다.
이 인드라망 날날의 구슬이 깨끗하지 못해 투명하지 못하면 빛이 나지 않아 서로를 빛내줄 수 없듯이, 외부관계와의 개선을 위해선 자신과의 관계개선이 먼저이다.

모든 존재들은 관계에 의해 살아간다. 그 대상에서 예외는 없다.

‘나’와 ‘부처님’과는 스승 제자의 관계이고, 반 스님들과는 도반의 관계이며, 부모님과는 부모 자식의 관계이다.

관계를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 없기에 타자 혹은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된 자신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때론 자신의 세계 안에 있던 관계의 틀 자체가 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규정지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건 어떤 것일까?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체감해온 관계의 변천과 이를 통한 새로운 발견에 대해 글을 쓰려 한다.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 제약이 커질수록 감정의 폭은 커져만 가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관계가 좋으면 그 상대도 좋은 사람이 되고 관계가 나쁘면 그 상대도 나쁘게만 보인다는 것이다.

아마 운문사에서 가장 힘든 것은 촘촘하고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정말 좋구나!’ 혹은 ‘나쁜 사람 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좋던 관계가 나쁘게, 나쁘던 관계가 좋게 바뀌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 변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 결국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해 잣대를 두고 판단하는 ‘나’ 자신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좋은 점을 지닌 사람에게는 환호를, 내가 가진 못난 점을 지닌 사람에게는 비난만 보내니, 결국 관계란

나를 타자에게 투영시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는 것의 다름 아니며, 그것은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존재를 대하는데 있어 드러나는 ‘나’의 모습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제석천이 살고 있는 궁전에는 인드라라는 거대한 그물이 있는데 그 마디마다에 달려 있는 무수한 보배구슬은 빛의 반사로 서로가 서로를 반사하고 그 반사가 또 서로를 반사하여 빛이 무궁무진하다고 한다. 이를 이름하여 인드라망이라 하는데, 화엄에서는 세계의 존재를 이 인드라망으로 비유한다.

이 인드라망 날날의 구슬이 깨끗하지 못해 투명하지 못하면 빛이 나지 않아 서로를 빛내줄 수 없듯이, 외부관계와의 개선을 위해선 자신과의 관계개선이 먼저이다.

어떻게 해야 자신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노력은 무엇보다 나를 바로 보는 것이라.

그렇다면 ‘나를 바로 보기 위해 먼저 갖춰야 되는 건 무엇일까?’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또 다른 물음이 답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아오며 넘어질 때도 있었다. 그 넘어짐이 많아 절수록 ‘나’와의 관계가 배타적으로 변했고, 스스로에게 깊은 수치심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관계는 변하는 법.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멈칫거릴 때마다 스스로를 앞으로 밀어주는 건 스스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애정이 관계의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음을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다시 ‘나’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보면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 또한 궁정적으로 열어주는 시발점이 되어주지 않을까?

깊은 산 속 용털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위의 동요를 보면 토끼는 왜 매일 하던 세수를 하지 않고 물만 마시고 돌아가게 되었을까? 아마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으리라. 자신의 모습은 찾지 않고 또 보지 않고, 관습적으로 세수를 하려 갔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마 자신의 상상보다 괜찮은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으리라. 세수를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신을 보았으리라. 그리고 용기를 갖고 세수가 아닌 물만 먹고 갈 수 있는 행위를 하며, 어제와 다른 생활을 영위할 자신감이 생겼으리라. 더불어 이 자신감이 다른 동물친구들과도 언제나 함께 관계할 수 있으리라는 아름다운 상상도 함께 해본다.

토끼는 나일 수도 당신일 수도 있다. 지금도 관계는 계속된다. 맷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소중히 노력 할 일이다. 나로서 제대로 선, 내가 앞서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



▲ 오백전 기도입재



▲ 송편 빛기 대중율력



▲ 치문반 논강



▲ 제44회 운문사 총동문회



▲ 출업생 인도성지순례

운문소식

- 9월 12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3일 오백전에서 '오백나한님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수행' 기도 입재가 있었고, 대웅전에서 일진 학장스님의 입재법문이 있었습니다,
- 9월 18일 총무원 교육원장 현웅스님의 "불교 공부의 방법"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3일 열불수업을 시작으로 요가 및 서예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9월 23일 ~25일 화엄반스님들의 출업여행을 위한 신중기도가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7일 추석맞이 송편 빛기 대중율력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30일 치문반스님들의 첫 논강이 학장스님, 주지스님, 강사스님들, 화엄반 사교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2일 '제 44회 운문사 총동문회 및 경기총회'가 있었습니다.
- 10월 5일 여성진료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8일 가을철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9일 ~ 11일 화엄반스님들이 서울 진관사 수륙재에 참석했습니다.
- 10월 10일 동화사 승시법고대회에 사교반 지송스님, 중수스님, 사집반 창일스님, 도훈스님이 참가하여 2위로 수상하였습니다.
- 10월 12일 ~ 26일 일진학장스님과 제52회 출업예정 화엄반스님들의 15박 16일간 인도성지순례 출업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10월 14일 조계종 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제1회 학인외국어스페ци대회'에 참석한 사집반스님들이 단체전 대상과 치문반 법여스님이 우수상을 진오스님이 원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10월 21일 중구일제重九日祭가 조사전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31일 ~ 11월 1일 '제59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가 속리산 유스호스터 운에서 '멈춤 없는 정진, 행복한 원력' 이란 주제로 열려 교회부스님 39명이 1박 2일간 다녀왔습니다.
- 11월 6일 가을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고, 인도성지순례 출업여행 보고가 있었습니다,
- 11월 15일 ~ 16일 짐장대중율력이 있었습니다.
- 11월 25일 가을철을 종강합니다. 한 철 근념하셨습니다.

도와주신 분

- 나모라 산행팀
- 순금사 초안스님
- 청원 성덕사
- 송암사
- 김군아
- 김금조
- 김인돌
- 노기용
- 배영자
- 배종옥
- 이기태
- 정해옥
- 한기듬
- 함혜향
- 허용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부처님,

당신의 원이
저의 원이 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행이
저의 행이 되게 해주시며

당신의 삶이
저의 삶의 되게 해주십시오.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자 격	1. 2016년 봄 수계자까지(행자교육 50기까지)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모집인원	사미니과 ○○명
시험과목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준 비 물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족계 수지자는 제외)
모집기간	2015년 12월부터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도착일시	2015년 2월 7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시험일시	2016년 1월 29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교 통 편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운문승가대학 학장 일진 · 주지 진광

모집대상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6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모집인원	○명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대학원·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 증명사진 2매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2016년 1월 2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 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명성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문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 · 계간] 기율호 · 통권 제134호 · 2015년 11월 23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일진 / 편집 · 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제준 / 편집위원 · 제준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제준(회향) / 삽화 · 진용, 도훈 / 편집디자인 · 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